

석사학위논문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설계 및 적용방안 연구

-중학교 「사회1」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사례로-

지도교수 손 명 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임 형 신

2003년 8월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설계 및 적용방안 연구
-중학교 「사회1」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사례로-

지도교수 손 명 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임 형 신

임형신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설계 및 적용방안 연구
-중학교 「사회1」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사례로-

임 형 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손 명 철

사회과 지리교육에 있어서 지역 학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학교 「사회1」 <4.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과 지리수업에 있어서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고찰하여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실험수업은 H 중학교 1학년 10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4월부터 5월초까지 약 40여일 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실험 수업 후에는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수·학습의 원리는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과제, 안내자로서 교사의 역할, 실제적 평가의 원리 측면에서 지역학습에 이론적 배경과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설계된 지역학습모형은 지역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 체험학습, 협동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있는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지역조사 학습활동은 학습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는 데 매우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었다.

넷째, 지역조사 학습에서 특히 학생들이 사회과목과 지역사회에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은 야외 현지조사 학습 활동이었다.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직관적 원리에 기초한 야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의 현지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주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느꼈다.

다섯째, 지역조사학습을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실시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소집단 협동학습이었다. 학생들은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과제를 급우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구성주의의 다양한 평가에 입각하여 실시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교사평가 방법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주고 소집단 조사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도 파악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을 평가의 영역에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은 학생들에게 지리적 안목과 지리적 사고력을 길러주어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과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므로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요어: 구성주의, 지역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야외 현지조사, 동료평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연구 동향	4
II. 구성주의와 지역학습	7
1. 구성주의 인식론과 교수·학습 원리	7
1) 구성주의 인식론	7
2)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	9
2. 구성주의와 사회과 지역학습	13
1) 지역학습의 의미	13
2) 구성주의와 사회과 지역학습	15
III.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설계	18
1. 구성주의 수업모형의 탐색	18
1)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모형	18
2)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지리교육 수업모형	20
2.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설계	22
3. 지역학습 절차	25
1) 수업계획	26
2) 도입	28
3) 탐구	29
4) 반성	33

IV. 구성주의에 근거한 실험 수업의 실제	35
1. 실험수업 대상 및 기간	35
2. 학습자의 특성 분석	35
3. 실험수업의 실제	40
1) 수업계획	40
2) 도입	41
3) 탐구	41
4) 반성	60
4. 실험수업결과 분석 및 문제점	61
1) 실험수업결과 분석	61
2) 문제점	67
V. 요약 및 제언	68
참고문헌	71
【ABSTRACT】	73
【부록】	
1. 학생들이 구성한 모듈별 지역학습 보고서	75
2. 지역학습 활동 평가지	104
3. 실험수업 전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107
4. 실험수업에 대한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109



표 목 차

<표 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인식론의 차이	8
<표 2> 지역학습 절차	25
<표 3>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계획	27
<표 4> 보고서 작성 양식	31
<표 5> 지역조사 학습 평가 기준표	34
<표 6>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에 대한 반응도	36
<표 7-1> 지역조사 경험 및 지역조사 학습 흥미도 1	36
<표 7-2> 지역조사 경험 및 지역조사 학습 흥미도 2	37
<표 8> 현재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	38
<표 9-1>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경험 1	39
<표 9-2>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경험 2	39
<표 10> 지역학습 주제 선정을 위한 제주의 환경 구분	43
<표 11> 모듈별 주제명 및 학습목표의 실제	47
<표 12> 모듈별 실내조사 계획	49
<표 13> 모듈별 야외 현지조사 일정	54
<표 14> 모듈별 야외 현지조사 장소	56
<표 15> 지역조사 학습 후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도	61
<표 16> 지역조사 학습 후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	62
<표 17> 지역학습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흥미도	63
<표 18> 주제망 구성의 필요성	65
<표 19>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의 필요성	66

그림 목차

<그림 1> 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15
<그림 2>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모형	19
<그림 3> 지리교육을 위한 지역적 주제선정과 내용구성 모형	21
<그림 4>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23
<그림 5>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의 학습내용 체계	27
<그림 6> 기초 주제망의 예	29
<그림 7> 지역학습 주제 선정에 따른 지역조사 주제망 모형	45
<그림 8-1> 모듈별 주제망의 실제 1	52
<그림 8-2> 모듈별 주제망의 실제 2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과의 지역학습은 직접체험이 가능한 학습자의 주변지역을 실제 조사함으로써 지역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리적 안목, 해결력, 사고력 등을 기르는 활동이다. 학습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그 속의 삶의 양상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습은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지리적인 방법이며, 지역에 관한 지식의 공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감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리교육이 사회과 교육에 공헌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¹⁾

사회과가 학습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제 사상이란 공간과 시간의 교차점 상에 일어나는 제반현상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유동적이다. 따라서 일어나는 제반사상들을 어떤 가치에 입각하여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²⁾. 이러한 특성은 지역을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나 추상적 지식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결국 사회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교육은 그 교과 지식의 어떤 뛰어난 학습방법을 통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습득시키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과 지식의 마인드에 학습자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객관화된 지식의 습득만을 학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만들어졌던 과정 속에 있게 함으로써 삶에서 지식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야함을 말한다.³⁾ 따라서 사회과 지리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중심의 내용구성과 학습자들의 삶 속에 있는 지리적 현상을 토대로

1) 조성욱(1999),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학습의 역할”, 『사회과학교육』, 제3집,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p.111.

2) 송인근(2003), 『존재론적 구성주의와 지리교육』, 교육과학사, p.48.

3) 임춘훈(2001),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p.1~2.

그 속에 내재된 지리적 의미와 의미의 지리적 구조를 재구성하여 구조화시킨 구성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지리적 지식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⁴⁾

학생들의 생활장소로서의 지역사회는 사회과의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학생들의 경험 획득 장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결정짓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지역학습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생활환경인 자연과 인문환경을 교과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회교과는 그 특성상, 교사보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경험세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써 교수·학습의 측면에서는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단편적인 지식 암기 중심적인 교육으로는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를 길러내는데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 구성주의는 이러한 인식론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대안적 교육이론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며 가르치는 교사 중심에서 배우는 학생 중심으로의 전환과 교수에서 학습으로의 변화를 제안한 학습이론이다.

구성주의 교육에서의 학습은 실생활에서 폭넓은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재구성하여 가는 과정으로, 지식은 탈상황적으로 '발견'된다기보다 맥락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⁵⁾ 즉 구성주의 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문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문제화시키고 이를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을 구성하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4) 송언근(2003), 전개서, p.142.

5) 상계서, p.36. 송언근은 맥락이란 인식주체가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을 인식하여 해석할 때 해석의 바탕이 되는 환경, 배경 또는 상황적 성격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말을 이해할 시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에 해당하는 것이 맥락이며, '그렇게'에 해당하는 것은 구성이라고 정의한다.

그 동안 사회과 지리교육에 있어서도 지식전달 위주의 교과 중심 수업방법과 암기위주의 학습 방법을 탈피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현장에 적용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구성에 있어서 ‘알아가기’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지식구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을 사례로 하는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중학교 사회과 지리수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고찰하여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원리를 도출하고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의 구성주의와 지역학습과의 관계를 논했으며 지역학습 설계를 위한 구성주의 수업모형을 탐색하였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 중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였다. 1차시 수업활동을 통하여 지역 학습과 관련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6개의 지역조사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조사를 위한 수업모형도와 구체적인 지역학습 절차를 설계하였다.

셋째, 설계된 지역학습 모형에 따라 수업을 적용하고 결과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업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내 H 중학교 1학년 3개 반을 대상으로 2003년 4월부터 5월초까지 약 40여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지역학습은 5~6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집단 협동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소집단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조사 활동을 하였고,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넷째, 수업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교사 평가지와 학습자 스스로가 성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평가지·동료 평가지, 다른 모듈 평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별평가와 개별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된 결과는 사회

과목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지역조사학습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 제주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지역학습의 방법, 수업준비 부담도,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동향

그 동안 사회과 지리교육은 지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 지식의 획득에 의존해 왔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경험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어서 학생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대안적 인식론으로 자리매김하는 구성주의는 지식의 상대성과 맥락성을 강조하여 학습자들의 삶의 터전과 그 속의 지리적 사상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스스로 지리적 맥락 속에서 지리적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본질과 관점, 배경 등을 정리하여 소개한 연구로는 강인애(2001)⁶⁾, 황상주(1999)⁷⁾의 연구 등이 있다.

둘째, 지리교육 또는 사회교육과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송언근(2003)⁸⁾, 한봉희(1998)⁹⁾, 서태열(1998)¹⁰⁾ 등은 사회과 교수·학습과정을 구성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지식의 유용성과 적합성을 들어 서술하고, 구성주의 수업을 위한 학습환경을 도출하여 실천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송언근(2003)은 구성주의적인 지리교육의 구현을 위한 학습모형으로 레지오 접근법에 의한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이론의 현실

6) 강인애(2001), 「왜 구성주의인가-정보화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문음사.

7) 황상주(1999), “사회과에 관한 구성주의적 이해-고급사고력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32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8) 송언근(2003), 전게서.

9) 한봉희(1998),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의 지리교육에의 활용”, 「사회과교육」, 제3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0) 서태열(1998), “구성주의와 학습자중심 사회과 교수-학습”, 「사회과교육」, 제3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적 적실성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지리적 사고력과 안목 그리고 지리적 문제 해결력 육성을 위한 가장 지리적인 수업으로 삶의 터전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주제중심의 통합 지리 교육을 설정하여 이를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박선미(1999)¹¹⁾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는 지리교육이 그 본질을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지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와 지리교육의 접점을 모색하고, 기존 객관주의 수업과 차별화 되도록 설계하여, 이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단원을 사례로 적용함으로써 구성주의 교육이 지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어떠한 이론적 근거와 작동원리를 제공하게 되는지 실제수업을 통해 분석·제시하고 있다. 최원희(1998)¹²⁾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원칙을 설정하고 지리교수-학습의 구체적인 수업사례들을 제시하여 구성주의적 지리교수-학습의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규학(1999)¹³⁾은 지리신문 편집 및 활용학습을 객관주의적 수업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지리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 방법 및 학습효과를 실험수업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김용신(1999)¹⁴⁾은 현장학습이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되는 이유가 이론적·방법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체계화의 토대를 구성주의 방법론에서 찾아 구성주의적 현장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적용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함성훈(2002)¹⁵⁾은 중학교 사회과의 목표인 고급사고력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주의에 근거한 물레방아 학습모형을 설계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능동적인 의미 창출을 도울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역 학습, 지역 조사 학습 또는 지역화 학습과 관련한 연구로 임춘훈(2001)¹⁶⁾은 구성주의 이론에 의한 상호작용적 탐구모형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3학년

11) 박선미(1999), “지리과 수업의 구성주의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2) 최원희(1998), “교과영역에서의 사고수업방법 개발: 구성주의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대한지리학회.

13) 최규학(1999), “지리신문 활용을 통한 지리수업 방법-구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14) 김용신(1999), “구성주의에 따른 사회과 현장학습 방법”,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5) 함성훈(2002),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구성주의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령지역을 사례로 하는 지역화 학습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지역화 학습에 있어서의 구성주의 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허은경(2002)¹⁷⁾은 다양한 영역의 지리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신장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구성주의 수업모형의 하나인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하여 지역 조사 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 조사 프로젝트 학습 방법은 다양한 지리적 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지리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인 학습방법임을 제시하였다.

넷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주도 지역을 사례’로 한 지역학습 연구로 김희선(2002)¹⁸⁾은 중학교 사회과 지리수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업모형으로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지역학습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인터넷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검증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회과나 지리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구성주의가 교수·학습이론으로써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이론적 탐색뿐만 아니라 실천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제주지역과 관련한 실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역학습의 이론적 근거로 구성주의가 적합함을 살펴보고 지역학습을 통하여 지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과 지리수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6) 임춘훈(2001), 전계 논문.

17) 허은경(2002), “지역조사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5. 지역조사 학습은 야외 현장 학습 중 현장조사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관찰이나 견학에서 얻은 정보에 더하여 자료를 찾고 조사 등을 통하여 더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18) 김희선(2002),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의 실제와 그 효과- 중학교 「사회1」 교과서 지리영역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II. 구성주의와 지역학습

1. 구성주의 인식론과 교수·학습의 원리

1) 구성주의 인식론

Piaget로 대표되는 인지적 구성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정신활동을 통한 능동적 지식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인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라고 파악한다.¹⁹⁾

구성주의는 기존 산업화시대를 지배했던 이른바 객관주의²⁰⁾ 인식론에 대응하는 대안적 인식론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핵심활동인 교수·학습 영역에서도 기존 객관주의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이론들이 지닌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정보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이 심화되면서 관심을 갖게된 대안적 방법론이다.

구성주의의 이해는 구성주의와 대비되어 이전 산업시대의 세계관에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던 패러다임, 즉 객관주의에 대한 간략한 규명과 비교를 통해 확인해진다.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과 객관주의 교육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19) 황상주(1999), 전계 논문, p.211.

20) 강인애(2001), 전계서, p.15. 객관주의(objectivism)는 다른 말로 논리적 실증주의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객관주의는 심리학 이론인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서방세계의 인식과 사고를 지배해 왔으며, 특히 산업시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어 왔다.

<표 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인식론의 차이

	객관주의	구성주의
지식	고정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 재구성되어지는 것
지식의 특성	초역사적, 초공간적, 범우주적인 성격	특정사회, 문화, 역사, 상황적 성격의 반영과 구현
현실	규칙적으로 규명가능하며 통제와 예측이 가능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독특함을 지니고, 예측이 불가능
최종목표	모든 상황적,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초월해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와 지식의 추구(Truth)	개인에게 의미있고 타당하고 적합한 것이면 모두 진리이며 지식(Viability)
주요용어	발견(discovery/find) 일치(correspondence)	창조(creation) 구성(construction)

자료: 강인애(2001), 「왜 구성주의인가? -정보화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문음사, p.16.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인식론의 차이에 대해서 강인애(2001)는 객관주의는 지식은 ‘발견’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인 제약을 벗어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구성주의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그 위에 자신의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을 가하면서 주어진 사회현상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그 결과로 지식이 생긴다고 본다.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에서 주장하는 지식의 보편성, 일반성을 부인하고 지식과 현실에 대해 역사성, 상황성, 구체성과 독특성, 다양성을 강조한다.²¹⁾

구성주의에서는 지식(Knowledge)이나 진리라는 용어 대신 적합성(Viability), 유용성 혹은 앎(Knowi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구성된 지식이 구성 주체자의 인식의 맥락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하고 유용하며, 지식이란 삶의 과정 속에서 맥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 재구성되어 지는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용어의 차이는 인식론의 절대적인 차이를 낳고 있다.

구성주의 인식론은 맥락과 구성을 저변으로 지식에 대한 정의²²⁾를 다음과 같이

21) 한봉희(1998), 전계 논문, p.117.

하고 있다.

첫째, 지식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구성된다. 지식은 인식주체자의 인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담론체계이나 우리의 삶이 철저히 사회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성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지식은 그 구성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항상 변화할 수 있다.

둘째, 지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인은 능동성을 지닌 인식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학습자는 지식을 내적으로 표상하고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식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간주관적²³⁾ 해석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지식은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맥락을 통해 유지된다. 결국 지식은 삶을 위해 만들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므로 지식의 생성은 주체와 객체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로부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실천되어야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은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실제 세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학습자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과거의 경험, 현재의 선입관, 미래의 의도를 바탕으로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현이 중요하게 된다. 구성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2) 임춘훈(2001), 전계 논문, p.10.

23) 송언근(2003), 전계서, p.41. 구성주의에서 구성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맥락의 형성배경은 사회적 속성이 강하다. 맥락은 곧 삶의 환경이고 구성은 이 환경 속에서 배태되어진 삶의 과정이자 삶 자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 속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에서의 구성은 맥락을 고려한 간주관적 특성을 띠고 있다.

(1) 자기주도적 교수·학습의 원리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인지적 혼란과 갈등을 주는 학습과제나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인적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기존의 객관주의 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인 목표수립, 전달로 수동적인 학습자를 길렀던 반면 구성주의는 학습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의 주인의식과 책무성에 두고 있는 것이다.²⁴⁾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은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감있고 책임감있게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학습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뜻한다.²⁵⁾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학습자가 원하는 주제나 과제를 이용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학습목표와 학습주제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형성된 사전 지식망에 목표와 주제를 자리매김하도록 하여 자신만의 학습수행전략을 발달시키도록 유념해야 한다.²⁶⁾



(2) 협동학습의 원리

협동학습은 각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 성원 모두가 유익한 결과를 얻고자 협력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집단 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학습구조이다.²⁷⁾ 즉 협동학습은 집단에 부여된 학습목표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달성하여 그 집단구성원 전체에게 유용한 학습효과를 획득하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에서는 특히 협동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대화를 통

24) 임춘훈(2001), 전계 논문, p.11.

25) 한봉희(1998), 전계 논문, p.119.

26) 박선미(1999), 전계 논문, p.33.

27) 유수현(1999), “협동학습을 이용한 지리수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6.

한 상호교류와 반성적 사고, 생성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²⁸⁾ 구성주의는 교수보다는 학습이론이므로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능동적인 구성을 통해 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그 이해가 주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성주의적 교육은 협동학습의 환경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 접촉을 통해서 개개인의 주관적 구성이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주관적 구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3)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과제 원리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단어가 “상황”과 “실제적 성격의 과제”이다.³⁰⁾ 실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과제가 어떤 특정한 학습목표의 달성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활에 유용한 사회과학적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고 생활주변에서 소재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시킴으로써 교실 밖의 실제 상황에서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 학습조직에서도 맥락중심의 사고³¹⁾를 강조하는 데 이는 구성주의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즉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실제적 성격의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의 원리에 충실한 학습방법의 하나가 지역학습에 있어서 야외 현지조사 학습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지역을 직접 체험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이 새롭게 구성되어 지리적 지식의 맥락과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다.

28) 조영남(1998), “구성주의 교수-학습”,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p.163.

29) 황상주(1999), 전개 논문, pp.209-228.

30) 한봉희(1998), 전개 논문, p.120.

31) 상계 논문, p.120. ‘맥락중심의 사고’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적, 조건적 결론을 내리고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선호하며 처한 맥락에 따라 유연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4) 안내자, 조연자로서의 교사역할

구성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을 말할 때, 대부분 인도자(scaffolder) 혹은 코치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논하고 있다.³²⁾ 교사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조연자의 역할을 하는데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학습자가 배워야 할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준다든지, 자료를 제시해 주든지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활발한 지식구성화 과정을 자극하고 지식구성을 위한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인 참여를 조장하고 그들을 더욱 이해하고, 학습자 자신이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인식과 실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같이 교사는 더 이상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그것을 재구성하고 창조하고,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가능성과 교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³³⁾

(5) 구성주의적 평가관

구성주의 이론에 따른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³⁴⁾

첫째, 평가에 대한 강조점은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수동적인 반응으로부터 적극적인 의미의 구성을 평가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학습기능의 평가로부터 통합적이고 탈교과적인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자기 평가와 학습기능의 학습과 같은 고차적인 인지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과 성취에 영향을 주는 동기나 다른 영역의 평가를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과정의 평가, 다면적 평가, 집단에 대한 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교육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차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학습에서의 의미구성 능력과 학습 전반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32) 강인애(2001), 전제서, p.138.

33) 한봉희(1998), 전제 논문, p.120.

34) 황상주(1999), 전제 논문, p.223.

2. 구성주의와 사회과 지역학습

1) 지역학습의 의미

사회과 지역학습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지역(region)이다. 지리학에서 다루는 지역(region)은 대체로 주민의 생활공간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지리학에서 말하는 지역이란 유무형의 주민생활양식이 지표면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공간 범위로³⁵⁾ 지역이라는 용어는 자연적, 문화적 특징을 지닌 동질지역(homo region)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편의, 관습, 생활편의 등이 복합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지역으로 보기도 하고,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범위가 주민의 생산, 생활양식 또는 의식, 태도에 따라 다른 범위와 구별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를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³⁶⁾ 또한 지역은 인접한 생활공간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을 지니면서 내적 현상간의 결합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진 동질적인 생활공간으로 시간의 힘에 의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특질을 누적적으로 소유할 때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굳어져 나타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의 道, 작계는 郡 단위의 공간을 말한다³⁷⁾.

지역에 대한 개념은 결국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 문화적 특징을 지닌 동질지역이며 행정편의, 관습, 생활편의 등이 복합되어 있는 행정구역 단위인 '제주도'를 하나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지역학습에 대한 용어는 향토학습³⁸⁾과 지역학습³⁹⁾, 지역연구⁴⁰⁾, 향토교육⁴¹⁾ 등

35) 김종욱(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 연구와 지역 교육", 「지리교육논집」, 제31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p.3.

36) 김용만(1986), "사회과교육과정 지역화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 교육」, 제19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p.10.

37) 남상준(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p.253.

38) 김연옥·이혜은 공저(2001),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교육과학사, p.84. '향토학습'은 학습방법을 통하여 향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 전체적 특성, 타 지역과의 상호 관련 등을 파악하고 향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한다.

39) 조성욱(1999), 전계 논문, p.107. 구연무는 '향토학습'을 '향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적인 면이 강하고 지역을 학습하는 목적이 다른 지역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학습한다는 의미가 강한 ‘지역학습’⁴²⁾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역학습은 학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역연구와 유사하지만 주요 관심이 순수한 지리적 의미로 지역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지역성 파악에 주어지고 지리적인 측면과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이 합쳐져서 추상적인 수준의 지역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역학습은 지리학에 기반을 둔 학습방법이지만 지리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과 교육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⁴³⁾

지역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직접활동에 의해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현상 및 지리적 현상과 서로의 관계의 기본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학생의 수준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학습형태이다. 또한 지역학습은 사회과 교육이나 지리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방법의 하나이다.⁴⁴⁾ <그림 1>은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를 도식화 한 것이다.

하고 넓은 시야에서 향토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한다. 이에 비해서 ‘지역학습’은 특정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 내지 학습하는 지역연구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지역연구에서 그 특정지역이 자기 향토일 경우 향토학습과 동일한 뜻이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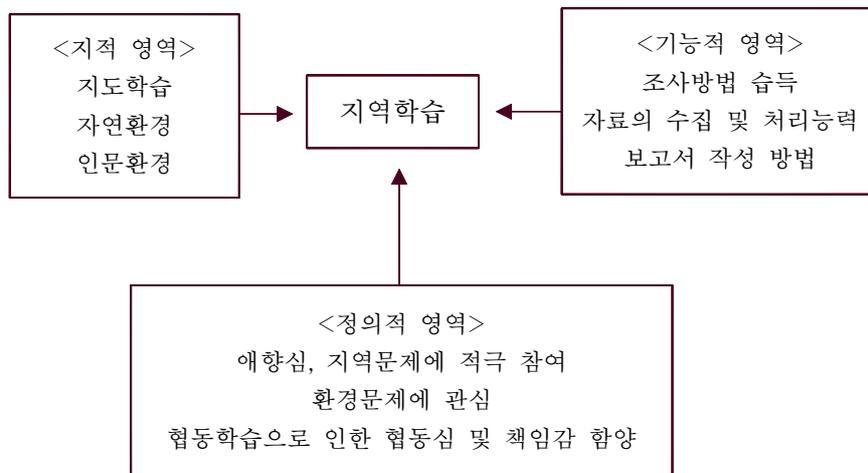
40) 상계 논문, p.107. 이양우는 ‘향토학습’을 향토에서 지리, 역사, 문화 등을 교재로 선정하여 교수함으로써 향토를 이해시키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향토애를 가진 인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연구’는 하나의 사례 지역으로 향토의 연구방법을 익혀 지역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의한다.

41) 조성욱(2002), “지리교육에서 주변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p.28. ‘향토교육’은 학습측면보다는 교육 측면의 성격이 강하고 지역을 학습하는 목적이 그 지역 자체의 학습을 통한 애향심이나 애국심 함양 등 지역의 학습이 목적이 되는 목적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42) 상계 논문, p.28.

43) 상계 논문, p.107.

44) 상계 논문, p.111.



<그림 1> 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자료: 조성욱(1999),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학습’의 역할”, 『사회과학교육』, 제3집,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p.112.

결국 지역학습은 직접체험이 가능한 학습자의 주변지역을 실제 조사함으로써 지역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역학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장소, 공간, 환경이라는 지리적 개념을 여러 가지 맥락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구성하여 가게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 내재된 지리적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삶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지역을 보는 안목과 문제 해결력, 지리적 사고력 등을 기르게 된다.

2) 구성주의와 사회과 지역학습

인식론의 변화에 따른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⁴⁵⁾ 첫째,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처리 기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을 포함하는 고등능력 사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지닌 인성을 강조하였다.

45)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pp.247-248.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개별학생의 서로 다른 능력과 흥미 등의 차이를 존중하여 내용을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용량을 크게 줄였다.

넷째, 교육과정상의 내용의 제시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단원별 주제와 주제요소의 제시형에서 벗어나 활동중심·문제해결중심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년별 내용을 기본적 지식·기능과 이의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결합한 성취목표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지역화의 요구와 ‘지구촌’교육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내용선정에서 지역사회와 세계와의 상호의존 및 그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교수·학습 측면에서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을 강조하여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별학습, 체험학습, 협동학습을 중시하며, 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적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가르치는 교사중심에서 배우는 학생중심의 전환이다. 따라서 지리교육도 교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교수·학습의 원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 협동학습의 원리,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과제의 원리, 안내자, 조연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실제적 평가 등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습득하는 지식이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성되는 것이므로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인지하게 되는 결과를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과 실생활의 경험 또는 체험학습, 협동과정은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삶’의 핵심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는 사회과 지역학습에 있어서의 이론적 배경과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 지리 영역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사회과 지리 영역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혹은 공간을 학습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속성상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지식과 가치란 성립될 수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리적 지식은 삶의 활동과 경험이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되며 이 구성

된 지식은 자신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지식은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계속적으로 구성·재구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 지리영역은 그 특성상 구성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⁴⁶⁾



46) 송언근(2003), 전계서, pp.54-55.

Ⅲ.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설계

1. 구성주의 수업모형의 탐색

학습모형은 그 배경이 되는 학습이론과 철학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시된다. 현재까지 수 없이 많은 학습모형이 제시되었으나, 학습의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형은 없다. 학습모형은 그 배경 이론과 철학, 학습하고자 하는 지식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제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회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업모형 중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학습모형과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지리교육 수업모형을 탐색하여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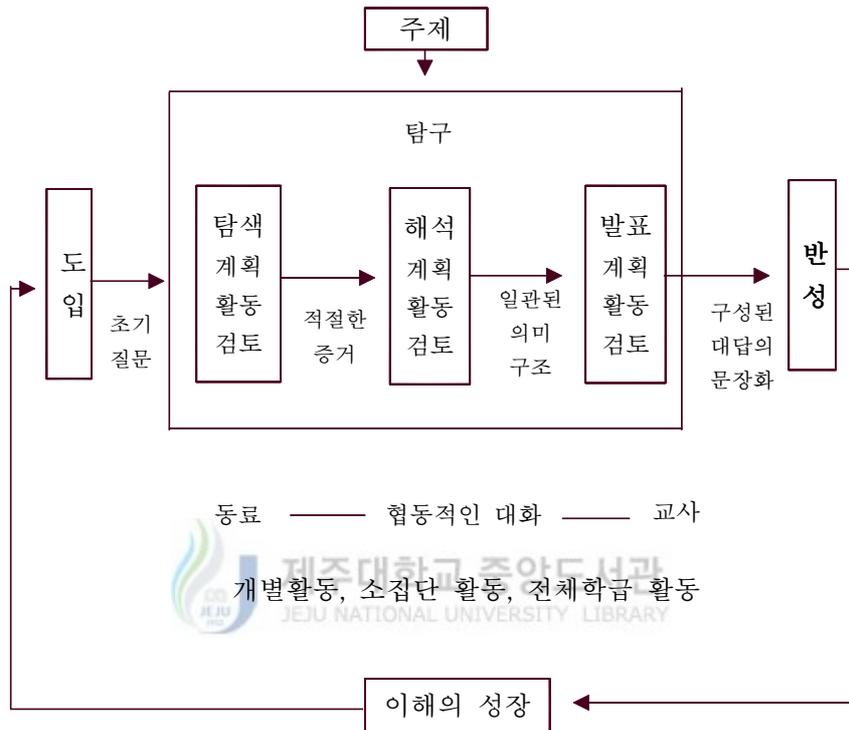
1)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모형

구성주의적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가 과제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학습자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비판 또는 지원받으며, 타인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한다. P.Vogel 등에 따르면, 구성주의 수업은 학습자 상호간의 생각과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⁴⁷⁾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모형은 한편으로는 조직화된 학습자 전체 혹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습상황에 작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 각자의 다양성과 독특함이 나타나도록 구성된다.

구성주의적 수업은 단순히 교사가 가르치고 학습자가 배우는 정태적인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사고하며 탐구하고, 교사는 그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동태적인 활동과정으로 진행해야한다. 수업의 구조와 흐름은 교수·학습의 단계와 학습공동체의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⁴⁸⁾ <그림 2>는

47) 박선미(1999), 전계 논문, p.78.

G.Wells(1995)가 제안한 상호작용적인 탐구모형으로서 박선미(1999)에 의해 재구성되었고 구성주의 수업의 구조와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된 모형이다.



<그림 2>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모형

자료: 박선미(1999), “지리과 수업의 구성주의적 접근-도시단원을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80.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인 탐구모형의 단계별 과정을 보면 수업의 도입활동은 탐구의 출발점으로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자극하는 초기 활동에 해당한다. 구성과정으로서의 탐구에는 탐색(research)·해석(interpretation)·발표(presentation)라는 3가지 기본요소를 갖춘다. 탐색은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48) 상계 논문, p.79.

는 것과 관련된다. 해석의 요소는 탐색결과를 보고 질문에 대한 대답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해석된 결과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아이디어의 의사소통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⁴⁹⁾ 탐색, 해석, 발표의 각각의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 협동적인 대화를 통하여 개별학습 활동, 소집단 학습활동, 전체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탐구를 하게된다.

반성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구성된 지식을 교실 밖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없다면 탐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⁵⁰⁾ 즉 구성주의적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주제 탐구과정에 대한 평가와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지리교육 수업모형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지리교육의 주목적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 속에 내재된 지리적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지리 관련 부분은 주제 또는 과제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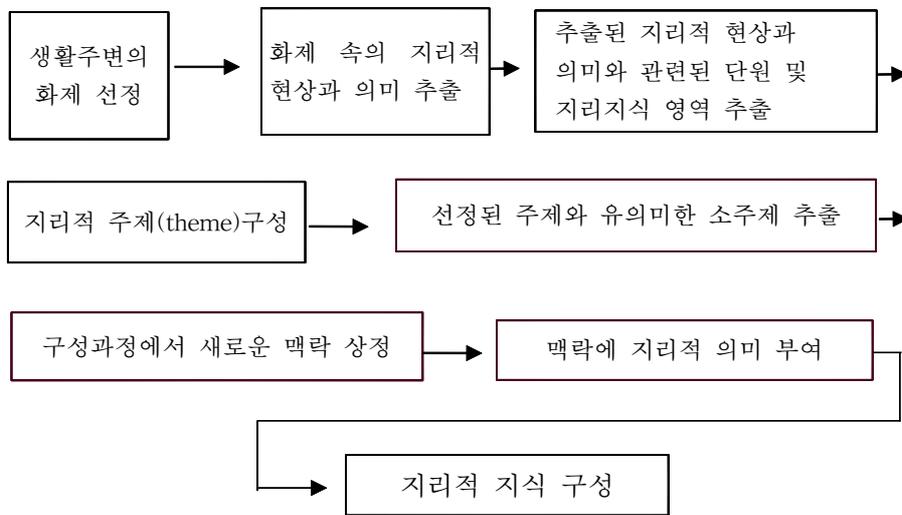
지리 교육은 학습자들의 일상 생활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대상으로 그 소재 속에 함의된 지리적 의미, 의미의 지리적 구조를 발췌하여 지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구조화시킨 주제를 통해 수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⁵²⁾ <그림 3>은 지리교육을 위한 지역적 주제 선정 과정과 이를 토대로 한 내용 구성 과정 모형도이다.

49) 상계 논문, p.81.

50) 상계 논문, p.82.

51) 김종욱(1994), 전계 논문, p.13.

52) 송언근(2003), 전계서, p.136.



<그림 3> 지리교육을 위한 지역적 주제선정과 내용구성 모형

자료: 송언근(2003), 「존재론적 구성주의와 지리교육」, p.145의 것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사회과 지리교육을 위한 지역적 주제 선정과 내용구성 과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 지리수업과 관련지을 수 있는 흥미롭고 가치로운 화제들을 찾는다.

둘째, 화제 속의 지리적 현상과 의미 추출 과정에서는 선정된 화제가 어떤 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삶의 터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제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지리적 현상과 현상 속의 지리적 의미(자연적·인문적 의미)들을 추출하여 현상과 의미들간의 관계를 지역적,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은 실제 수업 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하여 어떤 지리적 의미를 이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셋째, 추출된 지리적 현상과 의미와 관련된 단원 및 지리지식 영역 추출 단계에서는 수업시 학습자들이 주제 속에 내재된 지리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구성할 수 있는 관련된 지리적 개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과정이다.

넷째, 지리적 주제 구성 과정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찾은 화제(사례)들을 수업에 적합한 주제로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주제 구성 시 유의해야 할 것은 지리적 지식의

구조나 원리가 주제 속에 내포되도록 하는 것과 학습자들로 하여금 강력한 지리적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⁵³⁾

다섯째, 선정된 주제와 유의미한 소주제 추출 과정에서는 선정된 주제에 적합한 의미를 찾고 의미를 구성하면서 주제와 연계된 소주제(주제에 포함될 수 있는 하위 주제들)를 제시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주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소주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한 배경(맥락)들을 얘기하게 된다.

여섯째, 구성과정에서의 새로운 맥락 상징은 학습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구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맥락이 제시되는 단계이다.

일곱째, 맥락에 지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그 동안 무심코 보았던 아무 의미 없이 지나왔던 것들에 지리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또 다른 지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지리적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의미의 맥락을 찾고자하는 계기를 제공한다.⁵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여러 현상들에서 지리적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지리적 지식이 구성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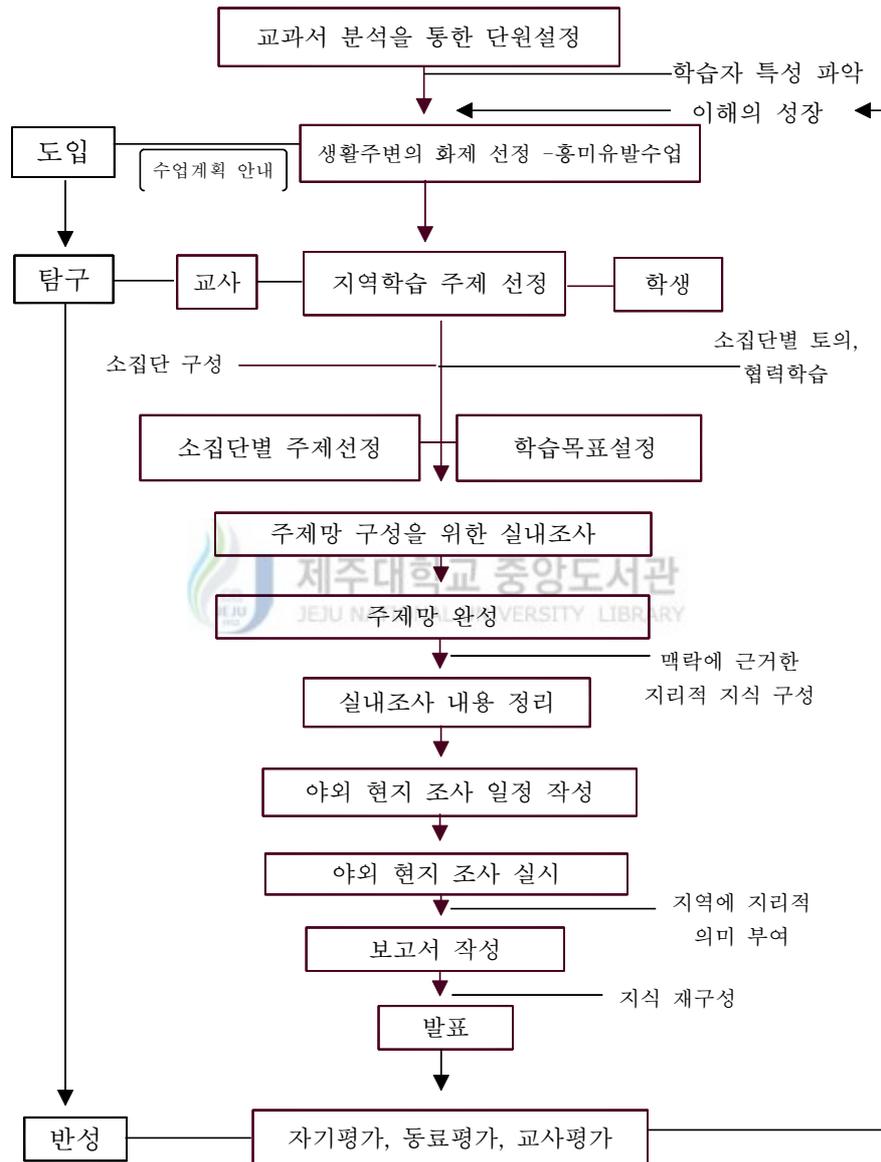
2.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설계

지역학습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지역을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해보는 직접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과 지리교육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지역 인식의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더 넓은 지역학습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지역학습은 교실에서 전개되는 다른 일반 수업과는 다른 모습을 요구하게 된다. 즉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실내조사, 탐구, 야외 현지조사학습,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와 교과서, 신문, 잡지, 시청각 자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료의 투입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

53) 상계서, pp.145-147.

54) 상계서, pp.81-84.

의 학습형태가 요구된다. 다음 <그림 4>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며, 협동학습과 상호작용적 탐구활동에 의해 지역학습을 수행하도록 연구자가 설계한 지역학습 교수·학습 수업 모형도이다.



<그림 4>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지역학습은 교수·학습과정에 따라 크게 수업계획→도입→탐구→반성의 4 과정으로 구성되고 세부적으로는 10단계로 나뉜다.

수업계획 과정은 교사의 활동과 계획 단계로서 지역학습을 위한 단원을 설정하고 실험수업의 수행여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지역학습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가계획 등 구체적인 지역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도입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제주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드러내보기 활동을 한다. 즉 학습자들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지리적 화제들을 찾아 학생들의 잠재된 다양한 생각들이 드러나게 한다.

탐구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조사 학습을 위한 소집단을 구성한다. 구성된 소집단 협의 및 토의에 의해 조사할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주제를 학습하기에 알맞은 소주제들과 관련된 학습 내용들을 찾아내 기초 주제망을 구성한다. 주제망은 선정된 소주제(하위주제)와 관련 학습내용들을 의미있게 조직하여 네트워크화한 것이다. 기초 주제망 구성에 따라 소집단 내 구성원들은 각각 하위 소주제를 하나씩 분담하여 실내조사를 하고 소주제망을 구성하여 소집단 구성원 전체의 활동을 통하여 완성된 주제망을 구성한다. 지역학습 주제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주제와 연계된 소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와 유의미한 맥락들을 통해 새로운 지리적 지식 구성을 하게 된다. 주제망 구성과 함께 지역학습 실내조사가 마무리되면, 주제와 학습목표에 적합한 야외 현지조사 장소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을 정한다. 이때 교사는 소집단들과 수시로 면담하여 야외 현지조사 장소 선정을 돕고 야외 현지조사의 구체적 활동방법 등을 조언해 준다. 야외 현지조사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실내조사를 통해 알게된 지역의 여러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역에 지리적 의미를 부여하여 지리적 지식의 재구성이 일어나게 된다. 학생들은 야외 현지조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지역학습 전 과정에서 행했던 결과물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를 한다.

반성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사 평가지와 자기 평가지,

동료평가지, 다른 모둠 평가지 등을 이용하여 조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성장되어 지역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일어나게 된다.

3. 지역학습 절차

지역조사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역학습 절차

과정	단계	내용구성	차시 및 활동 기간
수업 계획	1단계	실험수업의 설계 및 단원 설정	2003년 3월
		학습자의 특성 및 실험수업의 수행여건 파악	
도입	2단계	수업계획 안내	1차시
탐 구	3단계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선정	1차시
		모둠 구성과 모둠별 주제선정 및 학습목표 설정	2차시
		기초 주제망 구성하기 및 소주제 조사 분담	
	4단계	지역학습 실내조사 내용 정리	모둠별 조사기간 1주일
		주제명 정하기	
5단계	주제망 완성	3차시	
구	6단계	야외 현지조사 일정 계획 수립	4차시
	7단계	야외 현지조사 실시	조사기간 10일 간
	8단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리기간 1주일
반성	9단계	보고서 발표 및 평가	5차시
	10단계	실험 수업 후 흥미도 평가 설문	

1) 수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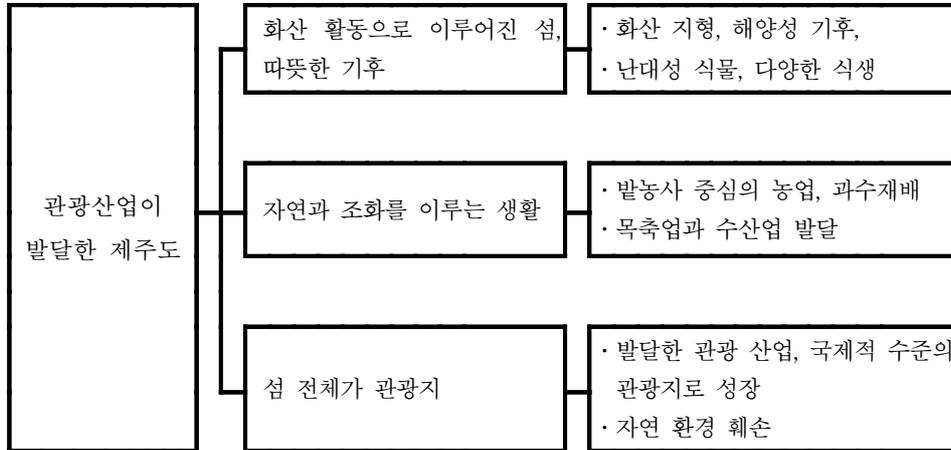
(1) 1단계: 실험수업 단원설정 및 학습자의 특성 파악

본 실험 수업은 지역학습을 위한 단원으로 <Ⅲ. 남부지방의 생활> 중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설정하였다.

지리교육의 목적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활공간을 관찰하여 자신을 둘러싼 문제를 지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키우는데 있다고 할 때, 학습자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제주도 단원을 사례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역학습은 이런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화산섬으로 따뜻한 기후와 독특한 문화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화산활동과 기후와 바다라는 환경의 영향으로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정신과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제주도박이 학생들마저도 유명한 관광지 정도는 알지만 제주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관련한 여러 지리적 현상들과 인문환경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고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그 해결책을 위하여 사고하고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활동의 무대인 제주도를 지역으로 한 지역조사학습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가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역을 조그마한 사진으로 백 번 보는 것보다 학습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을 의미있게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지리적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리적 지식이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지식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을 지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학습 실시를 위하여 1단계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특성 및 수행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역학습의 참고자료로 삼는다.

실험수업을 전개하기에 앞서 지역학습 실시를 위한 단원을 분석하고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현행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내용 중 지역조사 학습을 실시할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의 교과서 내용체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의 학습내용 체계

지역학습 단원인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의 학습내용을 구성주의에 근거한 상호작용적 탐구 모형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전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계획

대단원		Ⅲ. 남부지방의 생활	중단원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교수 목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체험학습, 협동학습을 통한 지역조사 학습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여러 지리적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고 지역을 보는 안목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한다.			
차시	단계	교수·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1 / 5	도입	수업계획 안내	수업계획을 알림	듣고 의문점 질문	인터넷을 통한 사진 자료 제시
		주제선정을 위한 흥미유발 수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제주도의 사진을 제공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보도록 한다. 교과서 내용을 활용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 답한다. 사회과 부도와 교과서를 참조하여 대답한다. 	

1 / 5	탐 구	지역조사 주제선정	학생과의 상호작용적 탐구를 통하여 주제선정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 5	탐 구	협동학습을 위한 소집단 구성	조사하고 싶은 주제중심으로 소집단을 구성한다.	소집단 구성을 한다.	
		소집단별 주제 선정 및 학습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조사 학습을 위한 절차 및 계획을 안내한다. 소집단별 조사 주제를 정하고 학습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역할 분담이 잘 일어나도록 조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조사주제를 하위소주제로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내조사를 한다. 기초주제망을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되도록 안내한다
		주제망 구성을 위한 소집단 협동 학습활동	소집단 협동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도움을 준다.	지역조사를 위한 주제망을 완성한다.	
		지역조사 소집단 협동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 현지조사 장소 선정을 도와주고 야외 현지조사의 방법과 주의할 점을 상기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야외 현지조사와 관련한 일정을 정한다. 야외 현지 조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발한 의견 교환이 되도록 유도한다
		전체학습활동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시 유의사항을 알리고 보고서 발표내용을 정리해준다.	지역조사결과를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 깊게 경청
5 / 5	반 성	자기평가, 동료평가 다른 모둠 평가	평가지 배부	진지하게 평가를 한다.	

2)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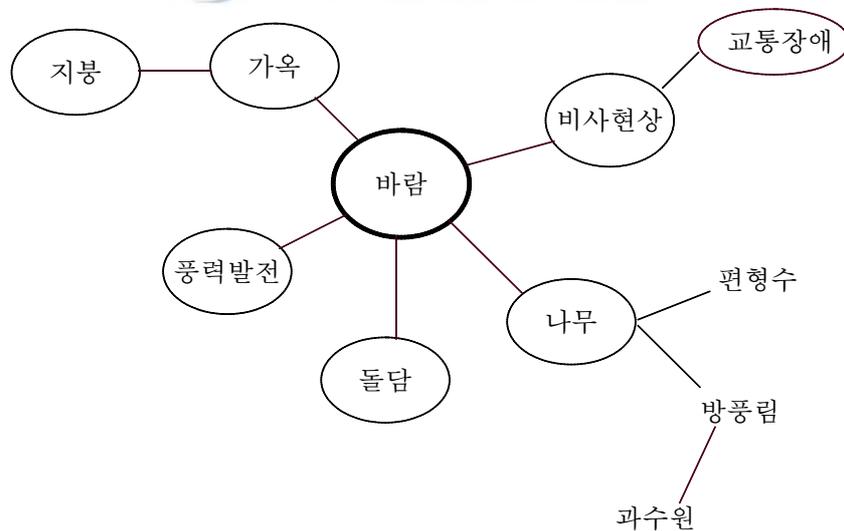
(1) 2단계: 수업계획 안내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은 지역조사 학습형태로 전개하게 됨을 알리고 수업절차와 지역조사학습 절차를 소개한다.

3) 탐구

- (1) 3단계: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선정과 모듈 구성, 모듈별 주제선정 및 학습 목표 설정, 간단한 기초 주제망 구성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과거와 현재의 여러 모습을 찍은 사진을 LCD를 이용해 보여주면서 주제선정을 위한 흥미유발수업을 전개한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대화와 탐구활동을 통하여 드러내 본다.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조사 학습 활동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학습을 위한 모듈을 구성한다. 모듈원들의 협의에 의해 조사 주제를 선정한 후 모듈별로 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활동을 하며 주제와 학습목표에 따른 기초 주제망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소집단내에서 조사할 역할이 분담되고(하위 소주제가 결정) 각각의 조사 분담 내용에 따라 실내조사 및 소주제 망 구성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림 6>은 기초 주제망 구성시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시할 기초 주제망 구성도이다.



<그림 6> 기초 주제망의 예

(2) 4단계: 주제망 구성에 따른 실내조사 정리 및 주제명 선정

지역조사 주제에 따른 하위 소주제를 정하고, 소주제 조사를 담당할 학생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개별학습에 의해 소주제에 대한 실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하위 소주제망을 각각 구성한다. 또한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모둠원들의 협의에 의해 지역조사 주제를 상징하는 주제명을 정하도록 한다.

(3) 5단계: 모둠별 주제망 완성

3차시 수업활동 시간에 하위 소주제 담당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조합하여 지역학습 주제망을 완성한다. 소집단내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교사는 모둠별 활동을 관리하고 조언하는 역할이 매우 필요한 단계이다.

(4) 6단계: 야외 현지조사 일정 계획 수립

4차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야외 현지조사 장소를 선정한다. 이때 제주도 지도를 통하여 조사할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야외 현지조사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현지조사 장소는 가급적 모둠별 조사주제와 학습목표가 잘 드러나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며 교사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둠별 대화와 협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며 현지조사와 관련한 설문지 등 자료를 만들도록 한다.

(5) 7단계: 야외 현지조사 실시

야외 현지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와 모둠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즉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의 통제하에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주도의 활동이 일어나지만 야외 조사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야외로 나가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할 가장 중

요한 역할인 것이다.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한 현지 조사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야외 현지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8단계: 지역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교사는 보고서 작성의 예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지역조사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표 4>는 교사가 제시할 보고서 작성 양식이다.

<표 4> 보고서 작성 양식

<p>1. 겉표지 작성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 모둠이 조사한 주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겉표지를 장식합니다. • 학년, 반, 모둠이름, 모둠원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 주제를 상징하는 배경을 뒤로 해서 모둠원들이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p>예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 이름: 바람아 놀자~ 1학년 ()반 모둠 이름: 사회사랑 조 모둠원: 임여왕, 임사회, 임공주,</p>
<p>2. 두번째 장은 수업시간에 모둠별로 활동했던 주제망을 제시합니다. (학습목표를 여기에 제시해도 좋습니다.)</p>
<p>3. 세 번째 장은 실내조사 내용으로 꾸밈니다. 실내조사 분량은 많아도 좋으나 가급적 핵심 내용만 간략히 정리된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실내조사 내용은 주제망 구성에서 드러난 소주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와 관련한 실내조사 내용에는 편형수와 방풍림, 과수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p>

예시) 실내조사 계획	
주제명	바람아 놀자~
학습목표	
조사방법	예) 문헌조사, 컴퓨터 인터넷 자료 검색 등 (조사한 자료도 소개해주세요)
소 주제	예) 돌담, 나무, 풍력발전, 비사현상 등 (주제망에 있는 내용 들)
조사담당	조 사 내 용
임여왕	돌담-돌담과 관련한 실내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임사회	나무-나무와 관련한 실내조사 내용을 정리
임공주	가옥-가옥과 관련한 실내조사 내용을 정리
.	.
<p>4. 다섯번째 장은 야외 현지조사 지역을 중심으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야외 현지조사 시작부터, 무엇을 조사했으며, 누구를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관찰, 이 용한 설문지 등 조사 방법을 적어 주세요.</p>	
현지조사 기간	2003년 월 일 ~ 월 일
현지조사 장소	
왜 이 곳을 현지조사 장소로 정하였는가?	
현지조사 과정	출발시간, 찾아갔던 방법, 걸린 시간 등
현지조사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하면서 사용한 방법 - 사진촬영, 녹음, 설문지 조사 등 2. 무엇을 조사했나요? 적어주세요. - 현지인과의 면담은: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물어봤으며, 알게된 내용은 무엇인가? 3. 현지 조사로 알게된 내용은?
<p>5. 마지막 장은 이번에 실시했던 지역학습과 관련한 전체에 대한 소감들 즉, 주제망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역조사 수업과 관련한 활동, 야외 현지조사에 얽힌 얘기들을 모 듬원 모두가 각각 써주세요. 좋은 점, 어려움, 즐거움, 등.....</p>	

4) 반성

(1) 9단계: 보고서 발표 및 평가, 평가결과 피드백

평가에 앞서 소집단별로 지역조사 결과 발표 시간을 갖는다. 모둠별 조사 내용 및 새롭게 알게된 지역에 대한 지리적 현상들과 지역조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에피소드 등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주의 여러 지역을 학습하게 되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제주의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지리적 사고의 확대를 계획한다. 이때 교사는 소집단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발표를 듣는 학생들에게 모둠별 조사주제와 실내조사 내용의 핵심, 야외 현지조사 내용을 정리해주고 지역조사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지역의 현상을 생각해보게 하여 지역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나 지역에 대한 이해의 성장을 돕도록 한다.

모듬 활동내용 평가는 자기평가, 다른 모듬 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를 활용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학습 활동의 참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이용한 개인 평가는 소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임승차학생의 점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듬에 대한 평가를 해봄으로써 집단에 대한 평가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지역조사 학습의 평가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평가 50점, 학생평가 50점으로 나누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과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교사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다른 모듬에 대한 평가 기준표는 <표 5>와 같다.

<표 5> 지역조사 학습 평가 기준표

평가기준		평점 (100점)	평가방법	
보고서	학습목표와 주제망은 일치하는가? 주제망 구성은 잘 되었는가?	10	교사평가	
	현지조사 활동은 조사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실하게 하였는가?	10		
	보고서 양식은 잘 갖추었는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잘 지켰는가?	15	교사평가	
	보고서는 성실하게 잘 작성되었는가?			
협동학습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은 잘 이루어졌는가?	10	교사평가	동료평가
내용정리 및 발표	조사내용 발표를 잘하는가?	15	교사평가	다른 모둠평가
참여도 및 성실도	역할분담을 성실하게 하였는가?	40	자기평가	동료평가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적이었는가?			
	보고서 작성에 성실히 참여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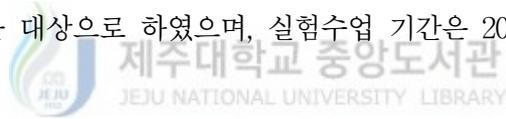
(2) 10단계: 설문지 조사

실험수업 후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주도적으로 행해진 지역조사 학습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즉, 지역조사 학습 활동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과목 중 지리수업의 흥미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설문과 지역학습에 있어서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던 지역조사 학습 방법과 소집단 협동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을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본다.

IV. 구성주의에 근거한 실험 수업의 실제

1. 실험수업 대상 및 기간

본 실험수업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H 중학교 1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H 중학교는 새롭게 조성된 제주도 연동의 신시가지에 위치한 학교로 개교한지 2년째 되며 남녀 공학이다. 이 지역은 제주도내 타 지역에서 살다가 2~3년 전에 이사온 가구가 대부분이며 타시도 전입생도 많은 편이다. 학교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혼자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도보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 비율이 높다. 실험수업은 남학생(34명)으로 구성된 1개 반과, 여학생으로 구성된 2개 반(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수업 기간은 2003년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다.



2. 학습자의 특성 분석

실험수업을 적용하기에 앞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사회과 탐구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를 학습한 후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현재 중학교 사회수업과의 연계성을 묻는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지역조사학습 경험 및 야외 현장조사 경험의 유무와 지역사회에 갖는 관심도 및 흥미도, 지역조사 학습에서 소집단학습의 경험을 알아보는 설문과 현재 중학교에서의 사회과목과 지리수업부분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는 설문도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특성을 알아본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에 대한 반응도

질문내용	답변내용					응답자 95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우고 난 뒤 제주도 지역사회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6 (6.3)	25 (26.3)	41 (43.2)	15 (15.7)	8 (8.4)	95 (100)
「아름다운 제주도」 내용은 현재 중학교 사회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6 (6.3)	18 (19.0)	39 (41.1)	21 (22.1)	11 (11.6)	95 (100)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를 학습한 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8.8%의 학생만 응답을 했다. 무응답자(11.2%)는 타도 전입 학생이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학습한 학생 중 지역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32.6%)이 ‘그렇지 않다’(24.2%)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교재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학습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좀더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확대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교재를 만들어 수업자료로 활용했을 때 ‘그저그렇다’(43.2%)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제주도」 학습 후 현재 중학교 사회수업의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질문에는 25.3%의 학생만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해 초등학교 지역화 교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중학교 사회수업과의 연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7-1> 지역조사 경험 및 지역조사 학습 흥미도 1

질문내용	답변내용	응답 107명 (%)
초등학교 사회과목 시간에 제주 지역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있다	31(29.0)
	없다	76(71.0)

초등학교 사회과목 시간에 제주도 지역을 조사 해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0% 학생만이 응답해 지역화 교과서를 통한 지역학습에서 ‘지역’이라는 ‘공간’을 실제로 조사하는 학습활동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2> 지역조사 경험 및 지역조사 학습 흥미도 2

질문 내용	답변내용					응답 (31명)
	이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초등학교 때 실시한 제주 지역조사 학습은 재미있었나요?	6 (19.4)	9 (29.0)	7 (22.6)	5 (16.1)	4 (12.9)	.
초등학교 때 실시한 제주 지역조사 학습의 방법은?	도서관문헌자료 활용					3(9.7)
	컴퓨터 인터넷 자료 활용					16(51.6)
	신문자료 활용					.
	실내조사와 야외 현지 조사 모두 활용					2(6.5)
	야외 현지조사 활동					10(32.3)
	기타					.

지역조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야외 현지조사 활동(32.3%)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도 비교적 높으나 컴퓨터인터넷을 통한 조사학습(51.6%)이 가장 높아 지역조사 학습 방법은 대부분 실내조사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야외 현지조사 활동 경험이 있다(32.3%)는 학생들 중 많은 응답자가 초등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전체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의 날’에 실시했던 야외 현장 관찰 및 견학 활동을 야외 현지조사 활동으로 인식하여 질문에 응하였다. 초등학교 때 제주 지역을 조사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지역조사 학습이 재미있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48.4%)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2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학습에 있어서 지역조사 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때 조사한 지역조사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제주의 오름, 삼별초의 몽고항쟁 탐구, 제주도의 선사시대와 역사, 관광지 조사, 문화재, 전설, 제주 민속촌, 제주의 기후, 유물, 토지조사를 꼽았다.

<표 8> 현재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

질문 내용	답변내용					응답자 107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현재 다른 과목에 비해 사회과목이 재미있나요?	18 (16.8)	25 (22.4)	22 (20.6)	26 (24.3)	17 (15.9)	.
사회교과 중 지리수업을 좋아하나요?	13 (12.2)	13 (12.2)	34 (31.8)	28 (26.2)	19 (17.8)	.
지리수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리과목 자체가 흥미 있다					12(11.2)
	지역에 대한 상식을 많이 얻게 된다					7(6.5)
	지리학습 내용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많이 준다					7(6.5)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					.
	기타					.
지리수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암기할 내용이 많아 부담스럽다					31(29.0)
	지도와 그래프, 통계자료 등을 보는 것이 힘들다					10(9.4)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28(24.3)
	실제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흥미가 없다					4(3.7)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며 암기할 내용이 많다					6(5.6)
	기타					2(1.9)

현재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 ‘흥미 있다’(39.3%)와 ‘흥미 없다’(40.2%)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응답학생의 비율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낮다. 사회과목 중 지리수업의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는 24.3%의 학생만이 ‘흥미있다’고 답해 사회과목 중 지리수업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수업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29.0%),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24.3%)가 전체학생의 53.3%를 차지해 사회과에서 지리수업 방법의 개선 및 학생들 이해도 수준에 맞는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9-1>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경험 1

질문내용	답변내용	응답 107명 (%)
초등학교때 소집단 협동학습을 구성하여 사회 수업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	36(33.6)
	없다	71(66.4)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제주지역을 직접 조사하는 야외 현지조사 학습을 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	14(13.1)
	없다	93(86.9)

소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수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36명) 중 야외 현지조사 학습을 경험한 학생(14명)은 39.0%로 소집단 지역조사 학습은 주로 실내조사 학습의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소집단 협동학습의 형태로 제주지역 야외 현지조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응답자의 13.1%이다. 야외 현지조사 경험이 없다는 학생 중 11.2%은 타도 전입생으로 제주 지역을 직접조사 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의 집단이다.



<표 9-2>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경험 2

질문내용	답변내용					응답 (36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소집단 협동 학습을 이용한 사회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5 (13.9)	13 (36.1)	12 (33.3)	4 (11.1)	2 (5.6)	36 (100)
소집단 협동 학습활동을 통한 제주 지역 야외 현지조사 학습은 몇 번 경험했나요?	초등 4학년 6번 초등 5학년 7번 초등 6학년 12번					

소집단 협동학습을 이용한 사회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36명) 중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5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1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집단 협동학습의 형태가 사회과 수업의 흥미도에 높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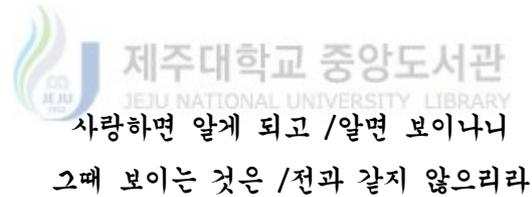
있다. 소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야외 현지조사 활동은 초등 고학년으로 올수록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능력의 발달과 공간을 인식하는 사고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험수업의 실제

1) 수업계획

(1) 1단계: 지역학습 단위 설정

본 실험수업을 위해 사전에 제주도 지역학습을 위한 수업형태를 알리고 제주도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을 조사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 교과서 <1. 지역과 사회 탐구> 단원에 나온 유홍준씨의 글을 인용하여 지역학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지역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를 '지역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를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역 사회를 알면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 '제주 지역을 주제별로 묶어 조사해보자'라는 말과 함께 지역조사 학습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2) 도입

(1) 2단계: 수업계획 안내

<Ⅲ. 남부지방의 생활> 중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는 지역조사 학습의 형태로 학습함을 알리고 결과물은 수행평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지역조사 학습 순서 계획서와 기초 주제망 작성의 예, 실내조사와 관련하여 참고할 제주도 관련 자료, 보고서 작성 양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 선정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미리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을 조사하여 오도록 과제를 주었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 지역학습에 유익한 인터넷 주소⁵⁵⁾들을 소개하였다.

3) 탐구

(2) 3단계



(가)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 선정

1차시 사회수업시간에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 선정 수업을 전개하였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과거와 현재의 여러 모습을 찍은 사진을 LCD를 이용해 보여주면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연상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를 선정해 가는 과정에서 교실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55) 제주도 지역학습에 유익한 사이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제주 도청 <http://www.provin.jeu.kr/>

제주지방 기상청 <http://jeju.kma.go.kr/climate/climate2.htm>

제주도 자연환경 생태정보 <http://www.jejunature.com/default.asp>

사단법인 제주영상동인 <http://www.chejuphoto.com/>

제주 오름 <http://www.azoomma.com/~chejutour/orum.htm>

교 사: 자, 제주도의 여러 모습의 사진들을 통해서 잘 봤죠! 그런 지금부터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연상해 봅시다.

학생들: 한라산, 한산학동, 돌하르방, 현무암, 한라봉, 파란 바다, 해녀, 여자 많다, 갈치, 옥돔, 한치, 자리, 바닷물 많다, 오즌, 홍수피해 없다, 밭농사, 일출봉, 섭지코지, 영하촬영, 몰인드나라, 몽두암, 산별초항쟁, 정방폭포, 중문관광단지, 국제자유도시, 돌담, 흑드새기, 삼별초항쟁, 몽천수, 해양성 기후, 해수목장, 빙떡, 항벌꽃, 감귤,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목장, 조깅, 소, 백옥담, 전복, 유채꽃 잔치, 벚꽃축제, 고사리 꺾기 대회, 정월 대보름 축제, 삼성현, 고·양·부, 치남단, 맛장굴, 김녕사굴, 여미지, 표선 민속촌, 설문대 항량, 오백장군, 삼다수, 가옥, 돌담, 정낭, 사투리, 4·3사건, 골프장, 갈옷, 월드컵 경기장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끄집어 내보라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많은 단어나 특징들을 잡아내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사회과 지역탐구 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와 본 실험 수업 1차시를 전개하면서 잠깐 들여다 본 제주의 여러 사진들과 사진에 따른 교사의 간단한 설명, 부모님들과 다녀온 곳 등 그동안 직간접으로 접해온 제주의 환경들이 연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우리 할머니, 우리 집 등과 같은 말들로 수업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연구자가 제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실험 수업을 했던 3개 학급에서 제주와 연상이 되는 것들을 잡아내는 수업을 했으나 거의 모두 위와 비슷한 내용들을 끄집어냈다. 단 남학생 반에서는 축구와 관련된 월드컵 경기장, 국제자유도시, 4·3, 삼별초 항쟁, 빙떡(자연사 박물관에서 봤다는 학생)을, 여학생 반에서는 여자 많다, 갈옷, 사투리, 흑드새기, SBS에서 근래에 방영한 올인 드라마 촬영을 연상했으나 이런 차이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연상된 결과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주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다른 반에서만 연상된 것들은 교사가 칠판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주적인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활동을 했다.

교 사: 자, 그런 여러분들이 말한 제주의 여러 특징들을 정리해봅시다. 앞에서

배운 ‘1. 지역과 사회탐구’ 단원에서 주변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크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눠보고 또한 자연환경을 위치,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으로, 인문환경을 인구, 교통, 문화, 산업, 시설 등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봅시다.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대화를 하면서 칠판에 정리해 본 제주의 환경들은 <표 10>과 같다.

<표 10> 지역학습 주제 선정을 위한 제주의 환경 구분

지역 사회 환경		내 용
자연환경	위치	최남단
	지형 및 토양	한라산, 화산 활동, 오름(기생 화산), 만장굴, 해수욕장, 파란 바다, 홍수 피해 없다, 용천수, 일출봉, 섬지코지, 용두암, 산방산, 백록담, 김녕 사굴, 현무암
	기후	해양성 기후, 바람
	식생	왕벚꽃, 감귤
인문환경	역사	삼별초 항쟁, 4·3사건
	인구	해녀, 여자 많다
	문화와 풍습	돌하르방, 돌담, 발농사, 유채꽃 잔치, 고사리 꺾기 대회, 정월 대보름 축제, 빙떡, 삼성혈, 설문대 할망, 오백 장군, 갈옷, 정낭, 고·양·부, 가옥, 사투리
	산업 및 시설	한라봉, 옥돔, 한치, 갈치, 자리, 흙드새기, 감귤, 감자, 고구마, 양파, 마늘, 목장, 조랑말, 소, 전복, 월드컵 경기장, 삼다수, 관광지, 국제자유도시, 골프장, 영화촬영, 올인 드라마, 여미지, 표선민속촌

학생들은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는 활동에는 주저 없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발표했으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해보는 활동과 특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활동에는 거의 모든 반에서 힘들어했다.

특히 자연환경 부분에서 ‘홍수 피해 없다’, ‘용천수’, ‘현무암’을 구분해내는 것과 ‘식생’, ‘토양’을 정리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인문환경에서는 ‘가옥’을 시설로, ‘표선 민속촌’을 문화와 풍습으로 구분한 반도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가옥’은 문화로 ‘표선 민속촌’은 관광을 위한 산업 시설로 구분하였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환경 중 구분하기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한 것은 ‘지형’, ‘식생’, ‘토양’ 부분으로 이는 용어의 생소함과 지리적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충분, 이해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에서 지리수업 부분을 암기식 수업 혹은 이해하기 힘든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1. 지역과 사회탐구’ 단원에서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학습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제주도 지역의 환경’을 대입시켜봄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 단원을 재학습하는 기회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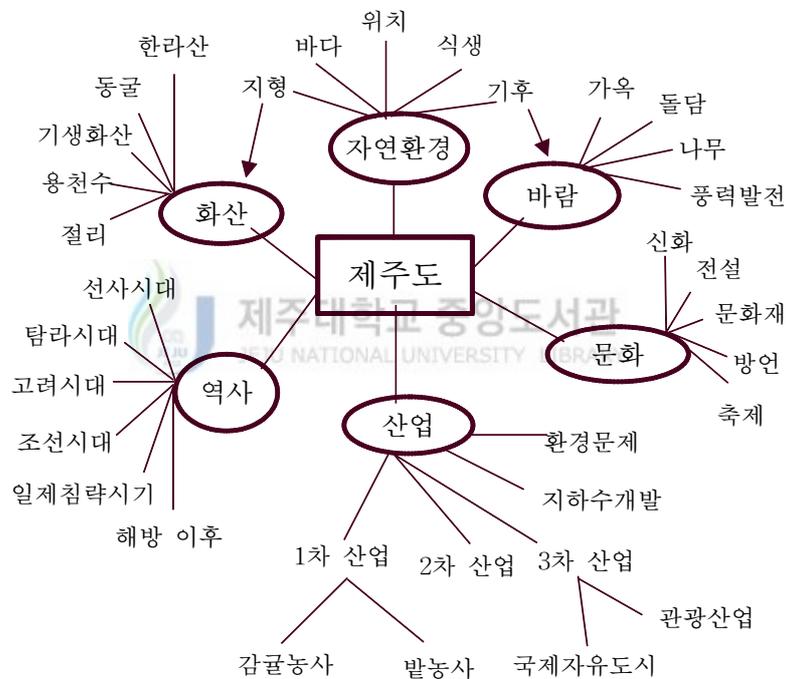
<표 10>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조사를 한다고 가정하여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해보라는 교사의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문화’와 ‘역사’, ‘산업’, ‘위치’, ‘기후’, ‘지형’순으로 선택했다. 조사하기 쉽고 자료가 많을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인문환경 중 많은 학생들이 조사하기를 희망한 ‘역사’, ‘문화’, ‘산업’을 하나의 주제로 놓고, 자연환경 중 제주도의 자연적·인문적 특징을 독특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화산활동’과 ‘바람’을 따로 하나의 주제로 하여 지역조사 주제를 선정하였다. 제주의 자연환경 중 화산활동과 바람을 따로 독립된 주제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연환경 분야의 조사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자연환경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지역학습을 위해 선정된 주제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었다.

- ① 제주의 자연환경 - 위치, 지형, 기후, 식생, 토지, 바다 등
- ② 제주의 역사 - 선사시대, 탐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현대
- ③ 제주의 산업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제주도의 지역개발, 지하수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 환경문제 등
- ④ 화산이 만들어 놓은 것 - 한라산, 동굴, 기생화산(오름), 주상절리, 용천수, 유명관광지 등

- ⑤ 바닷이 만들어 놓은 것 - 가옥의 특징, 돌담의 모습, 나무(방풍림, 편형수), 풍력발전, 비사현상 등
- ⑥ 제주의 문화 - 신화, 전설, 동하르방, 방언, 갈옷, 축제, 문화제 등

지역조사 학습 절차에 따라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지역 조사의 범위 설정과 학습 목표 설정 및 주제망 구성 과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 대화를 통하여 선정한 지역조사 주제를 하위 소주제들과 연결하여 <그림 7>과 같이 모형으로 구성하여 제시해주었다.



<그림 7> 지역학습 주제 선정에 따른 지역조사 주제망 모형

(나) 모듈 구성과 모듈별 주제선정 및 학습목표 설정

2차시 수업시간에 지역조사 학습을 위한 모듈 구성과 모듈별 주제선정 및 그에 따른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활동을 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위한 모듈은 2차에 걸

쳐서 구성되었다. 1차 모둠 구성은 조사하고 싶은 주제별로 구성을 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주의 '문화'를 조사하고 싶은 주제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평소에 많이 들어본 돌하르방과 갈옷, 축제 등이 소주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조사 시 쉬울 것이라는 생각과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서 주제를 선택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였다. 그래서 2차로 실시된 모둠 구성은 1차 모둠 구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상 번호순으로, 한 모둠 당 5~6명으로 구성하였다. 모둠원의 인원이 너무 많으면 협동학습 시 소란스럽고 산만하게 되며, 야외 현장학습 시에도 너무 많거나 적은 인원은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제주 지역학습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가급적 모둠원들의 협의에 의해 교사와 학생들 상호 협의에 의해 드러난 6개의 주제를 서로 나눠서 맡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둠원들의 대화와 타협이 이뤄졌고 원치 않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모둠들과 교사와의 상호 대화가 이루어졌다.

조사주제를 결정한 모둠들은 <그림 7> 지역학습 주제 선정에 따른 지역조사 주제 망 모형과 교사가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여 모둠별로 나눠준 주제별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지역조사의 범위와 학습목표를 정하도록 하였다.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대부분의 모둠들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목표는 지역조사와 관련하여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모둠별 지역조사 학습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설명과 함께 어렵지만 학습목표를 설정해보도록 했다. 그러나 수업 중에 학습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모둠이 대부분이어서 다음 수업시간까지 정하여 오도록 과제로 주었다.

(다) 기초 주제망 구성하기 및 소주제 조사 분담

교사가 작성해본 기초 주제망 예시자료<그림 6>과 <그림 7>을 LCD화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지역학습과 주제망 구성을 위한 기초 주제망을 구성하도록 했다. 초등학교에서 마인드 맵 구성하기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아 주제망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학생들은 비교적 빨리 이해했다. 기초 주제망 구성에 따라 지역학습과 주제망 완성을 위한 실내조사 내용 분담은 모둠내에서 협의에 의하여 정해졌다. 실내조사 내용 분담과정을 보면 소집단내에서의 활발한 협의에 의해 학습 능력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는 조사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소주제가 맡겨졌고 산만하고 학습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쉬운 내용의 소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둠내에 학습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학습을 위한 소주제 분담이 잘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리더가 없는 모둠인 경우는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교사가 개입하여 소주제에 따른 실내조사 내용을 분담시켰다. 각 모둠원들이 협의하여 결정된 주제 및 주제명, 학습목표는 <표 11>과 같다.

<표 11> 모둠별 주제명 및 학습목표의 실제

모둠 이름	조사 주제	주제명	학습목표
도새기	자연 환경	열심히 일한 당신 자연 찾아 떠나라	*
알콩달콩	화산	화산부활 금지령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긴 제주의 독특한 지형의 특성을 알 수 있다.
A+	바람	바람 내 손안에 있소이다!!!!	바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제사모	역사	역사를 잡아라	*
답사탐험대	문화	제주도 문화 · 풍습 여기 있수다	*
자유시대	산업	제주 찾아 끝까지..... 제주도는 대체 뭐하고 살지???	*
하면 된다	자연 환경	제주도! 너의 속을 벗겨주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알 수 있다.
볼케이노	화산	후끈 달아오르는 구마이~	*
테리우스	바람	제주도의 오랜 친구, 바람	바람이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	역사	역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콜럼버스	문화	공개수배 문화 25시	*
악동들	산업	*	*

거울소녀	자연 환경	자연아! 흔저 오라이~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과 제주도의 가옥구조를 안다
*	화산	열 받으면 터진다	· 폭렬공 기생화산의 형성을 알고 화산활동이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 화산활동이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수세미	바람	바람의 향기	바람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과거와 미래의 바람의 이용, 대처 방법을 안다
영재들	역사	타임머신	*
중독	문화	제주에 왕 봐 보라들이!!	문화와 풍습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을 안다
세븐	산업	니들이 산업을 알아???	제주의 산업과 발전에 대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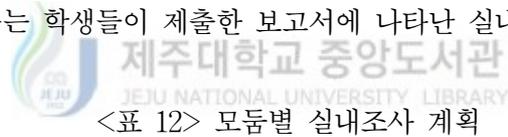
* 표시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들이다.

조사 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설정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모둠들이 힘들어했다. 중학생이 된지 2개월 남짓 되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지역조사 학습에 대한 활동내용과 방법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생소하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조사에 따른 학습목표를 정해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활동이었다. 교사가 학습목표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시 목표를 주었지만 ‘문화’를 조사 주제로 선택한 ‘중독조’ 같은 경우는 학습목표에 대한 이해를 못한 모둠으로 지역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문화와 풍습이 오히려 제주사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거울소녀는 자연환경을 조사주제로 선택하여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과 제주도의 가옥구조를 안다’는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학습목표를 하나로 묶어버려 조사주제의 구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모둠명 ‘알콩달콩’, ‘A+’, ‘하면 된다’, ‘테리우스’, ‘수세미’, ‘세븐’, 주제명 ‘열받으면 터진다’ 인 경우 학습목표가 너무 광범위하고 대부분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사할 주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또한 학습목표 설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아예 학습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모둠도 있었다. 이는 지역학습조사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선정됨으로 해서 나타난 방향 설정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조사 주제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모듈원 전체가 주제와 관련한 학습을 같이 한 뒤 조사할 소주제를 나누고 소주제를 중심으로 실내 조사를 한 후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했다면 좀더 조사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4단계: 실내조사 내용 정리 및 주제명 정하기

지역학습 조사를 위하여 교사는 제주도의 자연 및 인문환경과 관련한 기본 참고 자료와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었다. 그러나 교사가 정리하여 준 모듈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실내조사를 실시한 학생은 6.5%에 불과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87.9%)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실내조사를 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한 실내조사 내용은 나중에 야외 현지조사 활동이 끝난 후 보고서 양식에 따라 모듈별 협의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 내도록 하였다. <표 12>는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실내조사 계획 내용이다.



모듈 이름	조사 주제	실내조사 계획
도새기	자연환경	*
알콩달콩	화산	장나영-한라산, 좌아름-현무암, 장유리-용암동굴, 정서경-오름, 임희진-용천수, 최다솜-절리
A+	바람	이선희-가옥, 이정민-돌담, 이재현, 임희연-나무, 이재희-비사 현상, 이백화-풍력 발전
제사모	역사	*
답사탐험대	문화	신구간-강여경, 신화-강유진, 김소희-돌하르방, 강정은-축제, 고유진-전설
자유시대	산업	*
하면 된다	자연환경	김달, 김도인-제주도 탄생이야기, 김성유, 김성은-기후, 김영호-식생, 김윤석-토지 이용

볼케이노	화산	*
테리우스	바람	한성준-한경탁-돌담, 최원빈-풍력 발전, 진영재-가옥, 최종혁-비사 현상
*	역사	*
콜럼버스	문화	*
악동들	산업	*
거울소녀	자연환경	김혜선-제주도 탄생이야기, 문지원-제주도 위치, 박수이-식생, 김지혜-토지 이용, 박수희-기후, 노여진-제주 바다
*	화산	김다비-절리, 김도희-유명 관광지, 용천수-김민지, 고희경-오름, 김민경-동굴, 고지희-한라산
수세미	바람	김소정-돌담, 김수연-가옥, 김수경-비사 현상, 김이경-태풍의 피해, 김은혜-나무, 김유나-풍력 발전
영재들	역사	*
중독	문화	강미내-돌하르방, 강유리-신화, 강주희-축제, 강지혜-전설, 경수연-신구간, 고민경-방언
세븐	산업	장영룡-1차 산업, 장은영-2차 산업, 전효주-3차 산업, 주미현-환경문제, 이유정-똥돼지, 임보림-국제자유도시

* 표시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들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실내조사 계획을 보면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소집단 내에서 소주제를 중심으로 조사할 내용을 나누고 역할분담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둠 이름 ‘도새기’인 경우는 충실하게 지역학습 활동에 참여한 모둠으로 실내조사를 모둠원들이 서로 분담하여 했음에도 보고서에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모둠이다. ‘제사모’, ‘자유시대’, ‘영재들’인 경우 조사 내용을 나누지 않고 모둠원들이 모두 같이 과제를 해결한 모둠이다. 남학생들인 경우에는 6개의 모둠 중 실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실내조사를 실시한 모둠은 2개 모둠이다. 남학생 반인 경우 지역조사 학습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여 매우 산만하였으며 모둠 구성원 중 적극적인 리더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역할을 나누고 지역학습에 참여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모둠인 경우에는 교사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조사 학습에 응하지 않았다. 모둠 이름 ‘하면 된다’, ‘볼케이노’, ‘테리우스’, ‘콜럼버스’, ‘*(조사주제: 역사)’,

‘악동들’ 이 남학생 반 모둠으로 특히 조사주제 ‘역사’를 담당한 모둠은 실내조사 내용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의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제주공항과 제주향교, 오현단을 둘러 본 모둠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야외 현지조사를 충실히 했음에도 실내조사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모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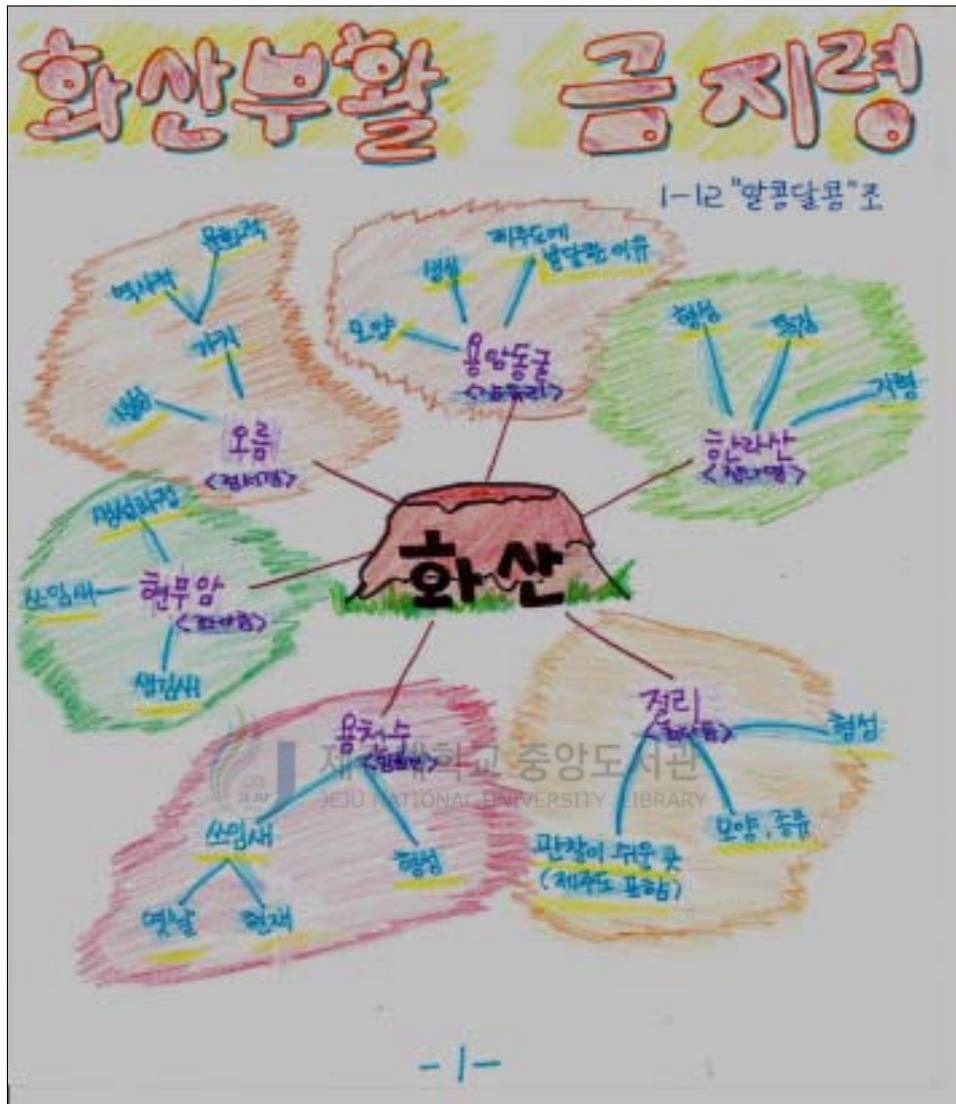
모둠별 주제명은 <표 11>에서와 같다. 모둠별 주제명은 대부분 지역학습 조사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화산부활 금지령’, ‘후끈 달아오르는 구마이~’, ‘열 받으면 터진다’, ‘바람, 내 손안에 있소이다’, ‘제주도의 오랜 친구 바람’, ‘제주도 너의 속을 벗겨주마’, ‘제주도는 대체 뭐하고 살지???’ 등은 조사할 주제를 재미있게 해석한 이름들이다. 주제명 정하기 활동에는 ‘악동들’ 모둠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모둠이 참여했으며 모둠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대화를 나눈 과정이기도 했다.

모둠 이름 <자유시대>는 ‘제주 찾아 끝까지.....’, ‘제주도는 대체 뭐하고 살지???’라는 주제명을 2개 가진 모둠이다. 주제 이름을 완성하여 제출한 다음에 더 멋진 주제명을 나중에야 생각했으니 꼭 첨가해 달라고 부탁을 한 모둠이었다.

(3) 5단계: 주제망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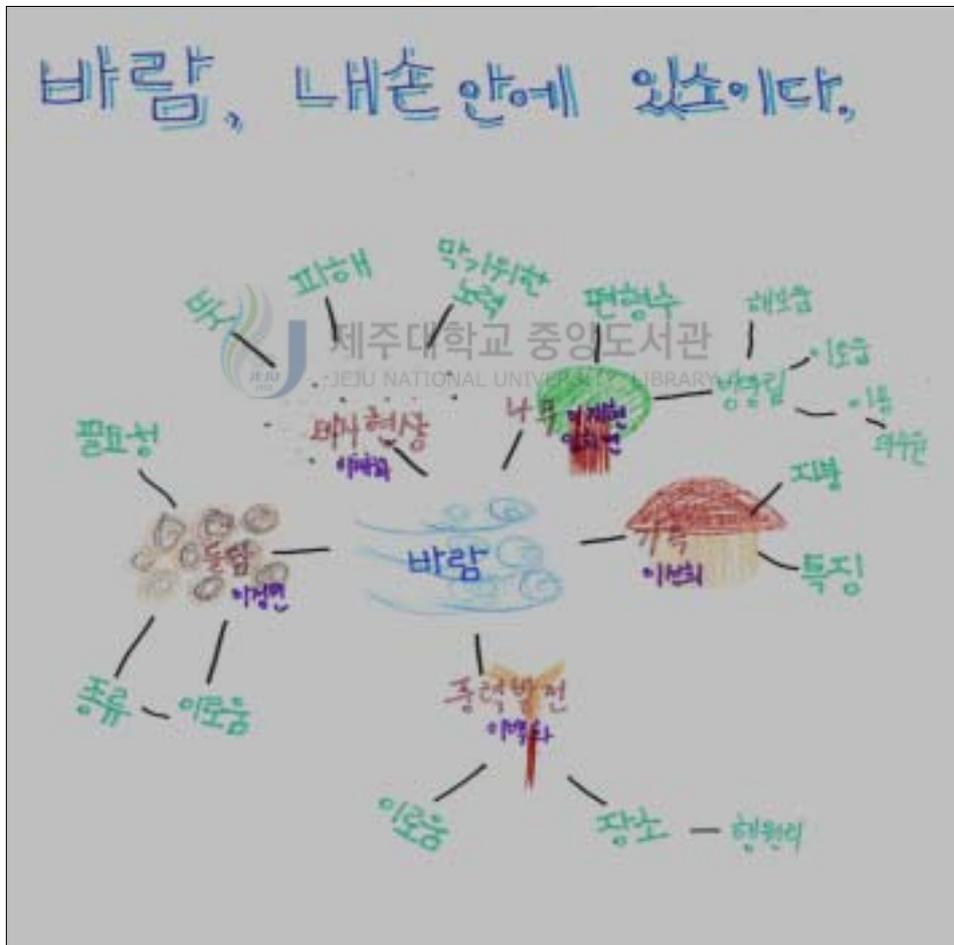
3차시 수업시간에 각 모둠에서는 지역 조사를 위한 주제망을 완성하였다. 소주제를 맡은 학생들이 구성한 소주제망을 이용하여 모둠별 주제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둠원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학습을 하게되었다. 즉, 실내조사를 통해 알게된 내용들을 모둠원들에게 설명하며 주제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다양한 현상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환경적 특징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실내 조사가 충실히 된 모둠과 자기가 맡은 내용을 구성원 모두가 조사해온 모둠일수록 주제망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나 완성된 주제망들을 보면 주제망 구성의 필요성과 방법을 2차시 교실 수업에서 설명하고 교사가 작성한 예시 주제망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항상 참고하도록 하였음에도 조사할 주제와 학습목표와 관련된 소주제와의 연결이 미흡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드러내지 못한 모둠이 많았다. <그림 8-1>과 <그림 8-2>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구성한 주제망의 예이다.



<그림 8-1> 모듈별 주제망의 실제 1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된 <알콩달콩>조에서는 제주도 화산지형을 이해하기 위해 용암동굴, 한라산, 오름, 현무암, 용천수, 절리(주상절리) 등을 소주제로 하여 주제망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소주제들의 생성과정, 형태적 특징과 이용 가치, 모양 등을 조사함으로써 화산이 만들어 놓은 제주도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히 화산분화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1,845km²라는 좁은 면적에 한라산이라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 같은 느낌을 주는 기생화산인 약368여개의 오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하위 소주제로 구성함으로써 제주민의 생활 근거지가 되어왔으며 신화와 전설을 간직한 오름의 가치와 보존을 생각해보고자 했다. 주제망 구성 중 용천수는 하나의 소주제로 조사하는 것보다 현무암의 하위 소주제로 가지뺄기를 해야 했으나 구성원이 6명이어서 각각 조사할 내용을 하나씩 분담하려는 과정에서 ‘화산’의 하위 소주제로 구성하게 되었다.



<그림 8-2> 모듈별 주제망의 실제 2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된 <A+팀>에서는 바람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나무, 가옥, 풍력 발전, 돌담, 비사 현상을 선택하였다. 특히 이 모듈에서는 ‘바람’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소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성하였는데 비사 현상의 피해내용과 이를 막기 위한 노력, 방풍림의 이용과 편형수의 특징, 가옥 지붕의 특징, 풍력발전의 위치, 돌담의 종류와 이로움,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망을 구성하여 돌과 바람이 많아 시련을 겪어야 했던 제주의 열악한 환경과, 땅과 바람을 다스리고 개척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슬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4) 6단계: 야외 현지조사 일정 계획 수립

거의 대부분의 모듈들이 주제망 구성과 대략의 실내조사가 끝났던 4월 20일부터 4월 29일 기간(약 10일)에 야외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으로 정하고 현지 조사 장소를 선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현지조사 계획은 4차시 수업시간에 모듈간의 협의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하고자 했으나 모듈원 간 시간과 개인 사정이 맞지 않아 수업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없었다. 결국 수업시간 내에 결정하지 못한 모듈은 추후에 날짜와 장소를 선정하여 교사에게 현지조사와 관련한 일정 계획을 알렸다. 현지조사 계획에는 학습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장소선정의 이유를 적도록 했다. <표 13> 은 모듈별 야외 현지조사 일정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모듈별 야외 현지조사 일정

모듈 이름	조사 주제	현지 조사 기간	현지 조사 장소	선정이유	교통 수단
도새기	자연 환경	2003. 4. 21.	토지 이용을 볼 수 있는 곳, 무릉	무릉에서는 벼농사와 논농사를 모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볼 수 있다	버스
알콩달콩	화산	2003. 4. 21.	만장굴	만장굴은 교통편리, 교통비용 저렴, 용천수 답사도 가능하여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	버스
A+	바람	2003. 4. 26.	행원리일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과 비사현상이 강한 지역을 보고 싶어서	버스

제사모	역사	2003.4. 20. ~4. 27.	삼양 원당사지 5층 석탑, 삼양동 선사 유적지	시내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이기 때문에	버스
답사탐험대	문화	*	삼성혈, 관덕정 돌 하르방	*	버스
자유시대	산업	2003. 4. 27	중문관광단지 일대	*	버스
하면 된다	자연 환경	2003. 4. 29	목초지가 있는 목장	제주의 식생을 보려고	도보
볼케이노	화산	*	중문 지삿개, 주상 절리	*	*
테리우스	바람	2003. 4. 27	성읍 민속마을	성읍 민속마을에는 돌담과 가옥이 많기 때문	버스
*	역사	*	*	*	학부모 자동차
콜럼버스	문화	*	사투리를 조사할 수 있는 곳	*	*
악동들	산업	*	스포츠 레저산업이 발달한 지역	*	*
거울소녀	자연 환경	2003. 4. 27	식생을 관찰할 수 있는 곳, 한림공원	식생, 민속촌 등 볼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	버스
*	화산	2003. 4. 26	오름 들 중 하나인 산굼부리	화산이지만 봉우리가 발달되지 않은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학부모 자동차
수세미	바람	2003. 4. 26 ~4. 27	행원리 풍력발전소 일대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 강한 바람 을 이용하여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찾아보기 위해서	버스
영재들	역사	*	제주시 일대 역사 적인 장소	제주시내에서 답사할 수 있기 때문	버스
중독	문화	2003. 4. 27	삼성혈, 돌하르방, 정 낭을 볼 수 있는 곳	가깝고 제주도의 신화 중에 삼성신 화(고.량.부)가 탄생된 곳이어서	버스
세븐	산업	2003. 4. 27	중문 관광단지 일대	국제 자유도시 추진에 이바지하는 곳이기 때문	버스

* 표시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들이다.

자연환경을 조사주제로 선택한 ‘도새기’조인 경우는 학습목표가 없는 모듈으로, 교사가 조언한 장소는 토지이용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교사의 추상적인 조언으로 해서 이 모듈에서는 벼농사와 밭농사를 모두 한다는 ‘무릉’을 현지조사 장소로 선정하여 교사에게 알렸다. ‘알콩달콩’모듈은 교통비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용천수

답사까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장굴과 김녕을 조사 장소로 선정했다. ‘A+’ 모듬은 바람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원리 일대를 조사장소로 선정하였으며 주제와 관련하여 장소 선정이 비교적 잘된 모듬이다. ‘제사모’ 모듬과 ‘영재들’ 모듬은 역사 주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제주시와 삼양 일대를 역사적 장소를 선정하였다. ‘하면 된다’ 모듬은 제주의 식생을 조사하기 위해 목초지가 조성된 목장일대를 조사 장소로 선정하였다. ‘테리우스’모듬은 바람이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읍 민속마을을 조사 장소로 선정하였다. ‘거울 소녀’ 모듬은 식생을 관찰할 수 있는 현지조사 장소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한림공원을 선정하였다. 목축업이 행해지는 목장지대의 식생을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교사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한림공원을 견학하고 온 모듬이다. ‘열 받으면 터진다’는 주제명을 가진 모듬은 화산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름들 중 하나인 산굼부리를 선정하여 조사하겠다고 결정하여 교사에게 알렸다. ‘수세미’ 모듬은 바람을 이용하여 제주가 살아갈 미래를 찾아보기 위해서 행원리 일대와 풍력발전소를 현지조사 장소로 선정하였다. ‘세븐’ 모듬은 국제 자유도시 추진에 이바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 컨벤션센터를 야외 현지조사 장소로 선정하였다.



(5) 7단계: 야외 현지조사 실시

<표 13>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모듬별 실시한 야외 현지조사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모듬별 야외 현지조사 장소

조사 주제	주제명	처음에 선정한 야외 현지답사장소	실제로 답사한 장소
자연 환경	열심히 일한 당신 자연 찾아 떠나	토지이용을 볼 수 있는 곳, 무릉	무릉 일대
화산	화산부활 금지령	만장굴	만장굴과 김녕리

바람	바람 내 손안에 있소이다!!!!	행원리 일대	행원리와 김녕일대
역사	역사를 잡아라	삼양 원당사지 5층석탑, 삼양동 선사유적지	삼성혈, 목관아지, 관덕정, 향교, 삼양 원당봉 원당사지 5층 석탑, 원당사, 제주 국립 박물관
문화	제주도 문화·풍습 여기 있수다	삼성혈, 관덕정 돌하르방	삼성혈, 관덕정 돌하르방
산업	제주 찾아 끝까지..... 제주도는 대체 뭐하고 살지???	중문관광단지 일대	중문 컨벤션센터
자연 환경	제주도! 너의 속을 벗겨주마	목초지가 있는 목장	한라수목원
화산	후끈 달아오르는 구마이~	중문 지삿개 주상절리	*
바람	제주도의 오랜 친구, 바람	성읍 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
역사	역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제주공항, 제주향교, 오현단
문화	공개수배 문화 25시	사투리를 조사할 수 있는 곳	*
산업	산업 x파일!	스포츠 레저산업이 발달한 지역	*
자연 환경	자연아! 흔저 오라이~	식생을 관찰할 수 있는 곳, 한림공원	한림공원
화산	열 받으면 터진다	오름들 중 하나인 산굼부리	산굼부리
바람	바람의 향기	행원리 풍력발전소 일대	행원리 일대
역사	타임머신	제주시 일대 역사적인 장소	관덕정
문화	제주에 왕 봐 보라들이!!	삼성혈, 돌하르방, 정낭을 볼 수 있는 곳	삼성혈
산업	니들이 산업을 알아???	중문 관광단지 일대	중문 컨벤션센터

* 표시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들이다.

야외 현지조사 장소는 수업시간과 수업외 시간을 이용하여 교사와 모둠간의 협의에 의해 답사장소를 선정했다. 그러나 처음에 선정한 장소와 실제로 답사한 장소는 변경된 모듬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4월 30일 제주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학부모의 의견과 교통비, 시간 등을 고민하다 조사하기 쉽고, 시간도 덜 걸리는 장소로 바꿨기 때문이다. 제주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내신성적에 반영이 안됨에도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모두 부담스러워했고

이로 인해 몇몇의 모둠에서 야외 현지조사 장소를 변경했다. 그러나 주제명 ‘화산부활 금지령’과 ‘역사를 잡아라’ 인 경우는 조사하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 애초에 선정한 장소 보다 더 많은 장소를 조사한 모둠이다. 모둠별 주제명에 따른 현지조사 장소를 살펴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자연 찾아 떠나라’에서는 벼농사와 밭농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무릉 일대의 토지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하였다. ‘화산부활 금지령’에서는 여러 소주제 중 용암동굴을 답사하기로 결정하였고 모둠원들이 선정한 장소는 만장굴이었다. 실제로 이 모둠은 만장굴을 조사했고 너무 빠른 시간에 답사를 마칠 수 있어서 김녕에 있는 용천수까지 조사를 하고 왔다.

‘바람 내 손안에 있소이다!!!’는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강한 행원리 일대에 있는 풍력발전소 방문과 편형수를 중심으로 야외 현지조사를 했으며, 비사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김녕 해수욕장도 조사를 했다.

‘역사를 잡아라’에서는 삼양 원당사지 5층석탑, 삼양동 선사유적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삼성혈, 목관아지, 관덕정, 향교, 삼양 원당봉 불탑사 5층석탑, 원당사, 제주 국립박물관을 조사하였다.

‘제주 찾아 끝까지.....’, ‘제주도는 대체 뭐하고 살지???’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문관광단지 일대를 조사 장소로 선정했다. 산업을 주제로 한 이 모둠은 얼마 전 sbs 방송에서 증명한 올인 드라마의 영향으로, 컨벤션센터를 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 별 다른 이의 없이 자연스럽게 장소가 결정되었다.

‘제주도! 너의 속을 벗겨주마’에서는 처음에 선정한 장소는 해발 200~600m 사이에 있는 목초지가 자라는 목장을 선정해서 보기로 했으나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시간이 없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장소인 수목원을 선택하여 식생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

‘역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제주 국제공항과 제주향교, 오현단 등을 야외 현지조사 장소로 선정하여 비교적 많은 지역을 답사하였다. 일본이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만들었던 정뜨르 비행장인 제주 국제공항에서는 해방직후에 들어서서 발생한 제주 최대의 비극인 4·3당시 최대의 학살터와 고인들을 답사하였다.

‘자연아 흔저오라이’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해놓은 한림공원을 조사했다.

‘열받으면 터진다’에서는 제주의 화산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모듬원 중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산굼부리를 현지 장소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바람의 향기’에서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거센 북제주군 행원리 풍력발전소 일대를 돌아보고 현지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충실한 지역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조사를 실시한 요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풍력발전소 사무실 문이 닫혀있어 풍력발전소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는 모듬이다.

‘타임머신’에서는 평소 많이 찾아갔던 관덕정을 답사하여 기대감이나 설레임은 없었으나 친구들끼리 찾아간 관덕정이 새롭게 보였다는 모듬이다.

‘제주에 왕 봐 보라들이!!’는 삼성혈을 돌아봄으로써 초등학교 때 몇 번이나 찾아갔던 장소를 다시 본다는 모듬원들이 많았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찾아가기 쉽고 지역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적당했기 때문에 갔다는 모듬이다.

‘니들이 산업을 알아???’는 제주 미래 산업의 상징이 될 중문 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충실하게 조사를 했으나 보고서에는 실내조사와 야외 현지조사의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듬이다.

(6) 8단계: 야외 현지조사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는 가급적 교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으며 주제망과 실내조사, 야외현지 조사 활동, 소집단내에서의 역할분담을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보고서 작성에 서툴러서인지 조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한 보고서 양식과 첨부할 것들에 대해 수시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양식을 갖추지 않은 모듬이 많았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보고서 양식을 갖춘 모듬은 하나도 없었고 몇몇 모듬은 실내조사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야외현지 조사 내용을 마치 실내조사처럼 작성한 모듬이 대부분이었다. 보고서는 대부분 제출 기한을 지켰다. 제출된 보고서의 예는 【부록】 <1. 학생들이 구성한 모듬별 지역학습 보고서 1, 2>와 같다.

4) 반성

(1) 9단계: 보고서 발표 및 평가

5차시 수업활동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약 5~6분간 주제명과 실내조사의 핵심내용, 야외 현지조사 장소, 야외 현지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알게된 지역의 여러 현상들, 지역조사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웠던 점, 즐거웠던 점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별 발표 후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주었으며 질의 응답은 시간 관계상 쉬는 시간에 질문하도록 했다.

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아침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평가는 【부록】 <2. 지역학습 활동 평가지>를 가지고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교사평가를 병행하였다. 이런 평가방법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주고 소집단 조사활동에 대한 참여도 파악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런 평가의 과정은 학생들을 평가의 영역에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였다. 평가방법 중 동료 모둠원들에 대한 평가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으나 모둠별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무임승차 학생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평가의 결과는 사회과목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수행평가 점수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평가 규정상 한 학기 사회점수 100점 만점에서 지필평가 90점, 수행평가 10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행평가에서 얻는 점수가 월등히 높아 과목석차와 내신석차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석차 차이를 좁혀보려고 지필평가에 비해 수행평가의 비율을 낮게 정하도록 과목 교사들에게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 100%의 점수 중 수행평가는 10%만 줄 수 있었다. 이처럼 수행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서 하루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현지조사 활동을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시험공부를 해서 지필평가에서 점수를 얻겠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연구자와의 상담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주제망 구성에서 드러난 야외 현지조사 활동을 하지 않아 지역조사 활동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모둠도 있었다.

4. 실험수업결과 분석 및 문제점

1) 실험수업결과 분석

실험수업이 끝난 후 수업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실험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는<표 1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다’(64.5%)가 ‘그렇지 않다’(14.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험수업 후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80.4%)이 매우 높다. 이는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을 조사하는 학습 활동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데 매우 적합한 수업형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표 15> 지역조사학습 후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도

질문내용	답변내용					응답자 107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제주도 지역을 사례로 하는 지역조사학 습은 재미있었나요?	22 (20.6)	47 (43.9)	23 (21.5)	12 (11.2)	3 (2.8)	107 (100)
지역조사 학습으로 인하여 제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나요?	46 (43.0)	40 (37.4)	17 (15.9)	2 (1.9)	2 (1.9)	107 (100)

<표 16> 지역조사 학습 후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

질문내용	답변내용					응답자 107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지역조사 학습으로 인하여 전에 비해 사회과목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15 (14.0)	44 (41.1)	34 (31.8)	10 (9.4)	4 (3.7)	107 (100)
지역조사 학습으로 인하여 사회과목에서 지리수업 내용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17 (15.9)	36 (33.6)	35 (32.7)	16 (15.0)	3 (2.8)	107 (100)

실험수업 후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55.1%)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1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수업 전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40.2%)보다 14.9%의 증가를 보인다. 또한 실험 수업 전과 후의 사회과목 흥미도에 관한 비율의 차이는 사회과목에 있어서 직접 조사활동을 해보는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더 흥미를 주는 수업형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험수업의 결과에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31.8%)들의 비율도 높은 편으로 이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번 지역조사 학습 활동에서의 과제 불이행과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둠에 속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지역조사 학습활동 시 교사의 역할과 지도에 관하여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조사 학습을 한 뒤 지리수업을 좋아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이 49.5%로 실험수업 전 지리과목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24.3%)이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학습에 있어서의 야외 현지조사 학습경험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이를 통한 지리수업의 인식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조사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제주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는 나무 하나라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제주 지역학습을 계속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표 17> 지역학습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흥미도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응답 107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지역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야외 현지 조사 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28 (26.2)	46 (42.5)	31 (29.0)	2 (1.9)	.	107 (100)
지역학습을 위한 실내조사는 어떤 방 법을 가장 많이 활용했나요?	도서관 문헌 자료 활용					3(2.8)
	컴퓨터 인터넷자료 활용					94(87.9)
	교과서에 있는 자료 활용					2(1.9)
	신문자료 활용					.
	교사가 준 참고 자료					7(6.5)
	기타					.
지역조사 학습에서 가장 좋았던 수업 과정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주제망 구성하기					5(4.7)
	실내조사하기					7(6.5)
	친구들과 친해지기					23(21.5)
	야외현지 조사하기					67(62.6)
	보고서 작성하기					5(4.7)
	기타					.
지역조사 학습에서 가장 힘들었던 수 업과정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주제망 구성하기					7(6.5)
	실내조사하기					7(4.7)
	야외 현지조사 일정짜기					16(15.0)
	야외 현지조사 하기					40(37.4)
	보고서 작성하기					39(36.4)
	기타					.
제주도 지역학습을 다시 한다면 꼭 해 보고 싶은 과정은?	주제망 구성하기					5(4.7)
	실내조사하기					12(11.2)
	야외 현지조사 하기					80(74.8)
	보고서 작성하기					8(7.45)
	기타					2(1.9)

지역학습에 있어서 68.7%의 학생들이 야외 현지조사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역조사 학습을 위한 실내조사방법으로는 87.9%의 학생들이 컴퓨터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얻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ICT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지역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조사 학습에서 가장 좋았던 수업과정으로는 ‘야외 현지조사 하기’가 62.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힘들었던 수업활동(37.4%)으로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현지조사를 위한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둠원들끼리 시간 맞추기와 학습자들의 거주지인 제주시 지역을 벗어나서 조사를 하는 어려움, 어른들 도움 없이 모둠원들끼리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점과 비교적 많이 드는 교통비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둠원들끼리 야외 현지조사 활동을 무사히 마쳐 보고서를 완성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 지역학습 중 다시 해보고 싶은 과정으로 야외 현지조사 활동(74.8%)을 꼽았다. 이는 지역학습에 있어서의 야외 현지조사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입시중심 교육제도 하에서 이런 지역학습을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상의 시간과 교과서 진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실험수업을 전개하는 과정 중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1학기 중간고사’가 겹치게 되어 애초에 선정이 되었던 야외 현지조사 장소가 비교적 시간이 덜 들고 조사하기 쉬운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보고서도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런 학습활동을 꼭 해야 하나’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있었다. 이런 학교 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과 교사들이 야외 현지 조사활동의 이로움을 알고 있지만 지역학습을 실시할 경우 실내조사 활동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초등학교 「아름다운 제주도」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중학교 수준의 지역화교재 및 야외 현지조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힘들었던 수업과정 중 보고서 작성하기(36.5%)에 많은 학생들이 응답했는데, 이는 보고서 양식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또한 보고서를 통해 소집단 협동학습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데 따른 어려움이었다.

이번 제주 지역을 조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내조사를 할 때 제주도의 바람과 관련한 자료나 화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았으며 이는 보고서 작성에 그대로 나타나 학생들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 이해가 안된 자연 환경 관련용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지역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중학생 수준에서 지역의 여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의 선정작업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8> 주제망 구성의 필요성

질문 내용	답변내용					응답자 107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주제망 구성하기 과정은 지역조사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나요?	43 (40.2)	33 (30.8)	25 (23.4)	4 (3.7)	2 (1.9)	107 (100)
주제망 구성하기는 지역조사 학습의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습목표 정하기					27(25.2)
	지역조사 내용 알기					26(24.3)
	지역조사 범위 정하기					34(31.8)
	모둠원들의 역할 정하기					12(11.2)
	야외 현지조사 일정 정하기					8(7.5)
	기타					.

지역학습에 있어서 ‘주제망 구성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71.%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많은 학생들이 주제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제망 구성은 ‘지역조사 범위’ (31.8%)와 ‘지역조사 내용’(24.4%), ‘학습목표설정’(25.4%)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9>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

질문 내용	답변내용					응답자 107명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제주도 지역조사 학습활동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소집단을 구성해서 한 것이 더 좋았나요?	74 (69.2)	18 (16.8)	11 (10.3)	3 (2.8)	.	.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으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었나요?	31 (29.0)	49 (45.8)	21 (19.6)	5 (4.7)	1 (0.9)	.
지역조사 학습을 할 때 친구들과 협동학습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쉬웠나요?	35 (32.7)	27 (25.2)	30 (28.0)	11 (10.3)	4 (3.7)	.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주제 정하기					6(5.6)
	주제망 구성하기					15(14.0)
	야외 현지조사 일정 정하기					23(21.5)
	야외 현지조사 하기					41(38.3)
	모둠원들과의 협동작업하기					22(20.6)
	기타					.

제주도 지역조사 학습활동은 소집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86.0%)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소집단 협동 학습활동의 이점으로는 친구들과의 친밀감(74.8%)이 생겼다는 점과 지역조사 학습시 학습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58.0%)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야외 현지조사 하기’ (38.3%), ‘야외 현지조사 일정 정하기’(21.5%), ‘모둠원들과의 협동작업하기’(20.6%)로, 이는 모둠원들 각각의 학원 프로그램 수강 시간과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시간대에 모일 수 없는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문제점

이번 실험수업을 전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구성주의에서 지식구성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대화와 협의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점이다. 즉 지역학습을 위한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간, 주제망 구성과 학습목표 설정 과정에서는 학습자간의 대화과정의 미흡함으로써 지역의 여러 현상들을 지리적으로 해석하고 지리적 의문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모듈별 협동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선정된 주제가 너무 방대한 ‘대주제’로 구성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목표 설정을 비롯하여 주제망 구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그 결과 지역학습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및 해석의 방향을 어렵게 만들어 야외 현지조사와의 연계성이 미흡했다.

셋째, 야외 현지조사 활동을 위한 모듈별 활동에 교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모듈별 조사 주제와 학습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부적합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야외 현지조사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넷째, 학생들은 처음에 선정한 야외 현지조사 장소를 학원시간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기 쉬운 장소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 주제와 연결된 야외 현지조사 활동이 미흡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입시중심 교육제도 하에는 교사는 진도 조절로, 학생들은 내신점수 관리로 인하여 지역학습을 위한 조사활동이 교과서 중심 교실수업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섯째, 지역조사학습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 및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회과 교사들은 지역조사 학습을 함에 있어서 실내조사 중심의 지역학습을 전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몇몇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지역조사 학습의 필요성을 묻는 항의성 질문이나 학생들이 야외 현지조사 활동 시 물어본 질문에 냉담한 자세로 응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비협조는 제주도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했다.

일곱째, 드러나는 비교집단 없이 실험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검사의 신뢰도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

V. 요약 및 제언

사회과 지역학습은 직접 체험이 가능한 학습자의 주변 지역을 실제로 조사하여 지역성을 파악하는 학습으로 지리적 안목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고차 사고력 등을 기르는 활동이다. 학습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그 속의 삶의 양상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지역학습은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지리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역에 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대감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이다.

사회과 지리교육에 있어서 지역 학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사 중심에서 배우는 학생 중심으로의 전환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이론을 지적 자료로 도입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중 <4.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과 지리수업에 있어서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식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구성주의의 이론을 객관주의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고찰하여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원리를 도출하였다. 구성주의에 근거한 수업모형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모형과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지리교육 수업모형을 탐색하고 이에 따라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였다.

지역학습 전개 과정은 크게 수업계획→도입→탐구→반성의 4과정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10단계로 이루어졌다. 실험수업에 참여한 H 중학교 1학년 10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수업 후에는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수·학습의 원리는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실제적 성격의 과제, 안내자로서 교사의 역할, 실제적 평가의 원리 측면에서 지역학습에 이론적 배경과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지역학습을 위한 사회과 수업모형으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탐구모형, 지역중심의 주제를 통한 지리교육 수업모형을 탐색하여 지역학습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역학습 설계모형은 지역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체험학습, 협동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있는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지역조사 학습활동은 학습자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는데 매우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었다. 지역조사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을 의미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지역성을 파악하고, 삶의 터전 속에 내재된 지리적 의미를 찾아 해석하여 지역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넷째, 지역조사 학습에서 특히 학생들의 사회 과목과 지역사회에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은 야외 현지조사 학습 활동이었다.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직관적 원리에 기초한 야외 현지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주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느꼈다. 그러므로 야외 현지조사를 통한 학습 활동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역조사학습을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실시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소집단 협동학습이었다. 학생들은 상호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소집단 협동학습활동을 통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과제를 급우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쌓아갔으며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평가는 구성주의의 다양한 평가에 입각하여,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다른 모둠에 대한 평가, 교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주고 소집단 조사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도 파악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을 평가의 영역에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평가 중 동료 모둠원들에 대한 평가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 때문

에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으나, 모둠별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무임승차 학생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설계된 지역학습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전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사회과 수업에 있어서 지역학습의 여러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단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학습 활동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야외 현지조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실내조사시 대부분 활용했던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임을 감안할 때 간접적인 야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연환경과 관련한 자료들이 대부분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중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지리학습과 관련한 보다 쉬운 용어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지역학습 프로그램 구안을 위한 지역 사회과 교과연구회 같은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사회과 교과 연구회가 집적된 지역학습 결과를 서로 공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와 같은 암기위주의 수업을 통한 평가가 주가 되는 입시 교육제도 하에서는 학생중심의 지역조사학습이 심도 있게 전개될 수 없다. 보다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지역조사학습을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그에 따른 지역화 교재를 제작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화 교과서를 꾸준히 개발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협력과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학생들이 야외 현지조사 학습활동을 할 때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고 그들의 조사활동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 지역학습은 보다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인애(2001), 「왜 구성주의인가-정보화 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문음사.
- 김연옥, 이혜은 공저(2001),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교육과학사.
- 남상준(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손명철 편역(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문화사.
- 송연근(2003), 「존재론적 구성주의와 지리교육」, 교육과학사.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pp.247 - 248.

2. 국내 논문

- 김남호(2001), “초등 사회과의 자기주도적학습을 위한 지역조사활동 모형구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오진(1996),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지역학습 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만(1986), “사회과교육과정 지역화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 교육」, 제19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김용신(1999), “구성주의에 따른 사회과 현장학습 방법”,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종욱(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연구와 지역교육”, 「지리교육논집」, 제31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김희선(2002),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의 실제와 그 효과- 중학교 「사회1」 교과서 지리영역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미(1999), “지리과 수업의 구성주의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태열(1998), “구성주의와 학습자중심 사회과 교수-학습”, 「사회과교육」, 제3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유수현(1999), “협동학습을 이용한 지리수업의 개선방안 연구”,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춘훈(2001),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욱(1999),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학습의 역할”, 「사회과교육」, 제3집,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2002), “지리교육에서 주변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 조영남(1998), “구성주의 교수-학습”,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 최규학(1999), “지리신문 활용을 통한 지리수업 방법-구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원희(1998), “교과영역에서의 사고수업방법 개발: 구성주의적 접근”,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대한지리학회.
- 최홍규(2001), “지역지리 내용구성과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봉희(1998),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의 지리교육에의 활용”, 「사회과교육」, 제3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함성훈(2002),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구성주의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상주(1999), “사회과에 관한 구성주의적 이해-고급사고력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32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허은경(2002), “지역조사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ABSTRACT>

Design and Application of Local Studies Based on Constructivism
-A Case Study of the Chapter “Jejudo Where Tourist Industry Developed”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I」 -

Lim, Hyeong-Shin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 Myong Cheol,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n improvement plan of teaching-learning method in geography education. In order to examine how to compose/construct local studies and what the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is, local studies class model is designed based on constructivism and carried out in actual class of the chapter 4, "Jejudo Where Tourist Industry Developed" of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Considered is the constructivism learning theory and the constructivism teaching-learning principle.

For this study, 107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H middle school were chosen and experiment classes were carried out for about 40 days from April to the early May in 2003. After the experiment classes, the changes reflected on students were measured using questionnaire and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ing-learning based on constructivism is providing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inciple to local studies in the side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the cooperative learning, the assignment of practical character to have done on a concret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situation, the role of teacher as a guide and the practical evaluation.

Second, the local studies model designed based on the constructivism was evaluated as a meaningful model that can practice the self-directed learning, the experience learning, and the cooperative learning in local studies.

Third, the locality-based research work activity in local studies of social studies was a very suitable teaching-learning method in terms of how the learners could experience directly and observe and understand their community.

Fourth, especially, the field work was the activity to raise students's interests in social studies and their community/region. Students could see, feel, and experience directly through the field work based on the intuitional principle. And they could attain pride about their region/community and regio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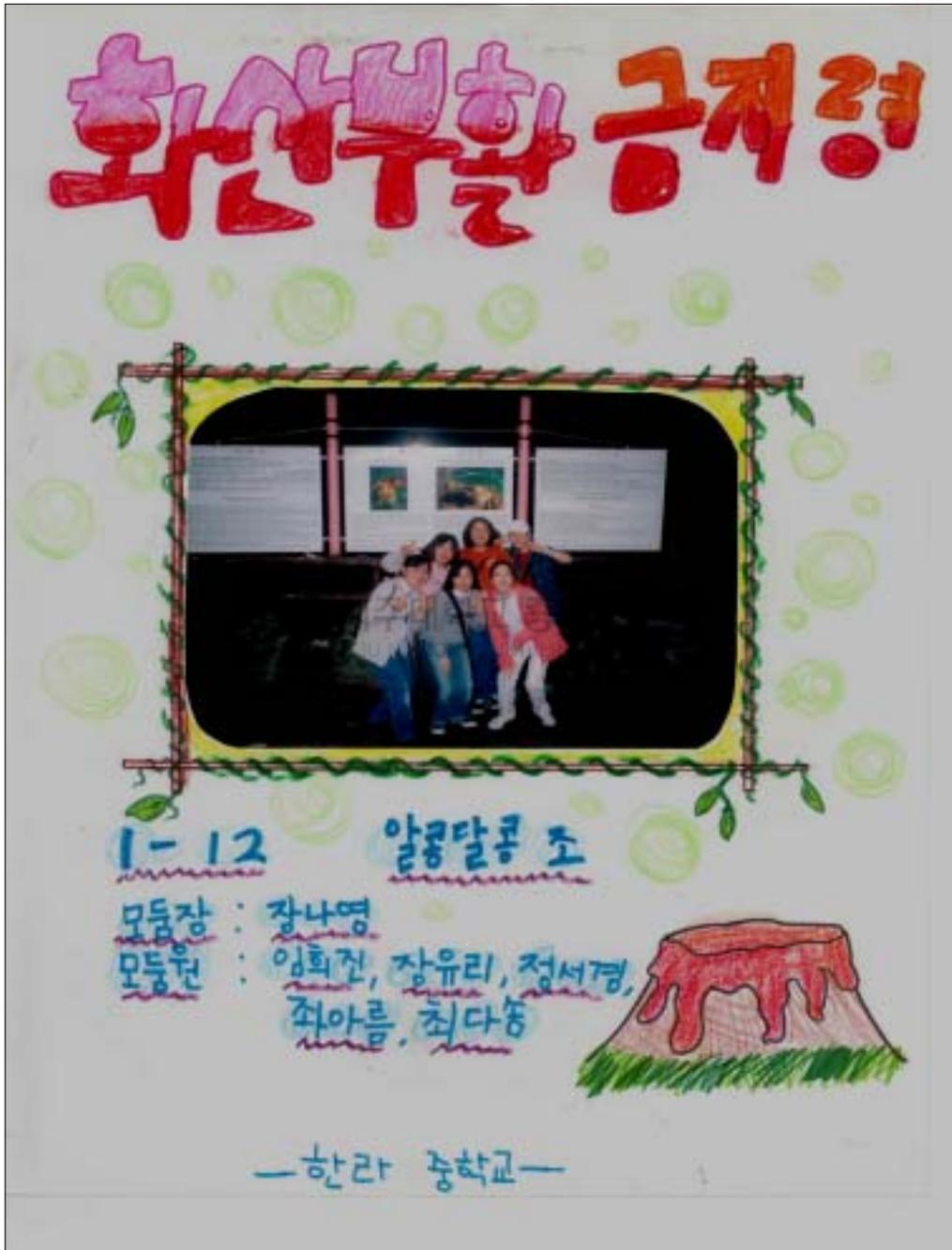
Fifth, the small group cooperative learning was the most effective and interesting locality-based research work. Students felt confidence and human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hard assignments with classmates.

Sixth, various evaluations based on constructivism such as the self-evaluation, peer-evaluation, the evaluation about other groups, the teacher's evaluation raised reliability about evaluation and justice, and became the bases to check student participation about small group research work activity. Students could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and it was able to inspire ownership about learning, too.

From the study results above, the local studies based on learner-centered constructivism is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o enhance the geographical eye and geographical thought for students and raise their ability to check a region generally and interest about social studies. Accordingly the case study practices must be performed consiste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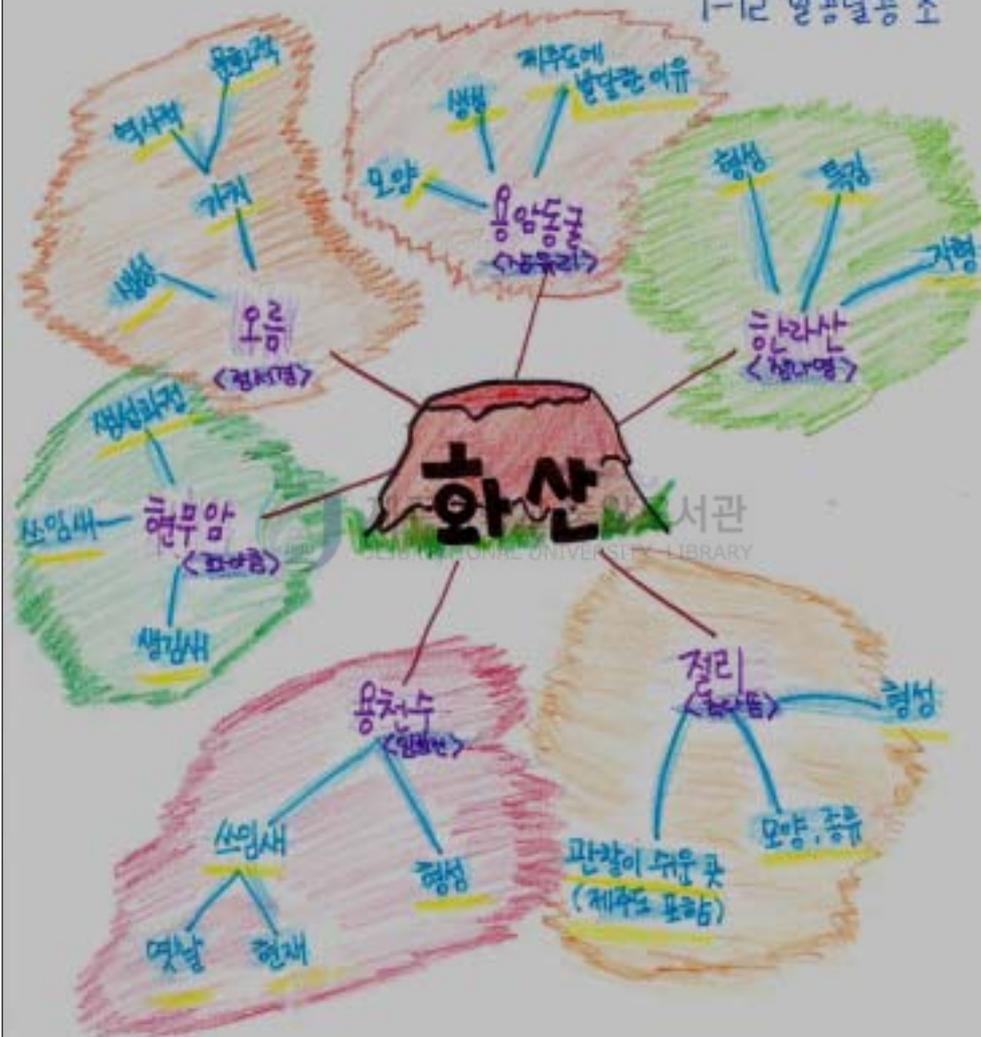
Key Word: constructivism, local studies, self-directed learning, small group cooperative learning, field work, peer-evaluation.

【부록】 1. 학생들이 구성한 모둠별 지역학습 보고서 1



화산부활 금지령

1-12 "알콩달콩"조



- | -

시내 조사계획	
주제명	화산부활 금지령
학습목표	1. 화산활동으로 생긴 제주의 독특한 지형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소주제	한라산, 현무암, 용암동굴, 오름, 용천수, 절리
조사담당 이름	
한라산	장나영
현무암	최아름
용암동굴	장유리
오름	정서경
용천수	임희전
절리	최다솜

<1> 한라산

① 형성 : 원래는 중상화산(산꼭대기가 좀 모양으로 생긴 화산, 정성이 큰 용암이 화구 위로 솟아 올라서 엉겨 굳은 것)이었는데 심한 해식 을 받아 잔류산리가 되었다. 이 잔류산리 의 정상부 화구에서 플라이스토세에 대내 분화하였는데, 이때 분출된 유동성 이 강한 알칼리성 현무암질이 사방으 로 흘러내려 오늘날 같은 순상화산 이 형성되었다.

② 특징 : 한라산의 상봉에는 지름이 약 500m인 화구가 있고, 화구의 동쪽에 수심 1~2m 의 백록담이 있다. 성판악휴게소를 지나면 남서쪽을 건너 한라산의 남서면이 되므로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난대 성식물이 자라지 못하며, 겨울철에는 눈이 쌓여 산세가 험악하다. 제주북쪽사면에서는 해발고도 600m, 남쪽 사면에서는 700~1,100m에 이르는 산 허리까지 난대성 상록활엽수림이 무성하고 그보다 높은 공권저대로 올라가면 온대 낙엽수림이 형성된다. 북사면의 1,000m 남사면의 1,500m 이상의 고지대에는 냉대림 등이 우거지고 명실기암은 한라산의 정상에 가장 가깝고 기암괴석이 많아 오백나한 이라고도 부른다.

③ 기형 :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으로, 제주도 면적(1,820km²)의 7.3%를 차지한다.

<2> 현무암

① 형성: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물질에는 물, 연기, 재, 그리고 녹아 있는 물질들이 있다. 이러한 녹아 있는 물질이 지표면 밖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 현무암이다.

② 현무암의 쓰임새: 건축자재(미분), 공예품, 농업용 재료, 의약품 외품, 각종고강도 연마제, 자동세차시스템 필터

③ 생김새: 결모양 크고 작은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다. 색깔은 흑색, 또는 회색이다. 알갱이의 크기 암석을 이루고있는 알갱이의 크기는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다.

* 현무암의 결표면에 구멍이 많이 뚫린 까닭: 마그마가 지표면 밖으로 나올 때, 여러가지 가스가 빠져 나간 자국이 남기 때문이며, 현무암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

<3> 절리

① 형성: 화성암의 경우에는 마그마가 냉각할 때 수축되어 판상절리, 주상절리 등이 생긴다.

② 종류와 모양: 절리에는 쪼개지는 방향에 따라서 판상절리나 주상절리가 있는데,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나 삼각형의 긴 기둥 모양의 절리를 뜻한다. 판상절리는 명석 등이 울려 왔던 암석이 침식된 받아 영 표면에 드러나면 암석이 반치고 있던 하층이 제거되면서 균열이 생긴다.

③ 관찰이 쉬운 곳: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즐비하게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부지방에서 많이 발견된다. 절리는 화강암에서 잘 일어난다.

* 절리란? : 암석이 외력이 가해져서 생긴 금.

<4> 용암동굴

- ① 생성 : 용암이 흘러내릴때 표면이 먼저 식어서 굳은 다음 그 아래부분의 용암이 흘러서 빠르거나 생긴 동굴이 바로 용암동굴이다.
- ② 모양 : 용암 속에 포함되어 있던 탄산가스나 수증기 등 고온의 가스 압력 때문에 천장이 무지개 (아치) 모양을 이룬다.
- ③ 제주도에 발달한 이유 : 제주도에 용암동굴이 발달한 이유는 제주도가 화산성 가운뎃도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적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이다.

<5> 용천수

- ① 생성 : 화산 지대인 제주도의 그 특산물이 각 표면에 고이지 않고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에서 해안가에서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지표로 솟아 나옴으로써 생성되었다.
- ② 쓰임새 : 옛날 - 70년대 후반
 1. 마을의 주식수원이 되어 식수역할을 하였다.
 2. 생활의 권천수로 이용했다.
 3. 마을의 자연 피서지가 되기도 하여 옛날에는 등용장소가 됐다.
 4. 권천병장과 역할을 하였다.
 5. 동네 아낙네들의 빨래터 장소로 쓰였다.현재 - 산업화 시대가 되고 수도가 공급되면서 용천수는 그 역할을 잃고, 현재는 쓰지 않으며, 쓸 환경도 되지 못한다.

<6> 오름

① 생성 :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되었다.
27만년전 뜨거운 용암 기둥이 지각 아래를
뚫고다 한라산을 부풀려 올렸으며, 뒤이어 남은
기둥은 한라산 기둥 중산간지대 여기저기
크고 작은 기성화산 오름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② 가치 :

1) 역사적 가치

제주인의 정신 세계를 응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오름에
산재하고 있거나 견혀져고 있는 인물 자원
은 제주도민에게는 특히 정신적, 심경적
자원으로, 제주학의 중요한 연구자원이며, 예술
활동에 다양한 작품의 무대와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 문화적 가치
제주 오름은 일상에서 두렵게 체험할 수 없는
심비오름과 오름 탐방에서 얻을 수 있는 휴식
과 체험효과가 매우 좋아서 자연성과 더불어
어 교육적 가치, 개인의 심경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의 오름은 다른 지역에서 두렵게 볼 수
없는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수려함과 다양한 식물상, 역사·인문·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생태 관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장조사 기간	2003. 4. 21. 09:00 ~ 2003. 4. 21. 17:30
현장조사 장소	만장굴, 김녕리
태 이 글을 현장조사장으로 정하였는가?	처음에는 한림에 갈려갔으나 감도싸고 도통도 편리하고 더불어 용천수도 관찰 할 수 있는 일석상소 근처에 있는 의 장소 였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과정

출발시간 : 오전 9시
학교 정문에서 만났다.
찾아왔던 방법 : 우선 터미널에 전화해 버스요금
을 알아본뒤 버스를 1시간 가량
타서 도착했다.

걸린시간 : 제주대학교 중영도서관 30분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용천동 - 자석강 30분

현지조사 내용

1. 무엇을 조사했는가 ???
- ① 만장굴에서
만장굴은 총 연장 13422m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제 98호이다.
<<만장굴에서 볼수 있었던 것들 >>
1) 용암종유
동굴이 형성된 직후 고온의 증기압 때문에
폭벽이나 천정에서 재형용된 용암 역물이
길게 매달려 굳어진 것처럼 되어

석회동굴의 종류적과 유사한 모양을 이루는데, 이를 용암종류라 한다.

2) 용암구 (돌거북)

측벽부로 부터의 용암벽이나 천정에서 낙반된 용암괴(낙반석)가 유동하는 용암류와 함께 이동하는 동안 용암류의 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고결되어 이차용암층이 남게 된 것이 용암구이다. 돌거북은 용암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평의 줄무늬는 용암류의 양이 정질적으로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3) 용암석주

용암동굴이 형성된 후, 이차용암이 천정의 틈이나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사이에 고결된 것이 용암석주이다. 이 석탑은 대표적인 용암석주의 하나로서 높이 (만장굴 1km 지점에 7.6m, 밑둘레 8m 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8m 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낙반석

용암동굴이 형성된 후 천정이 붕괴되고 낙반됨으로써 생긴 현무암괴이다. 현무암층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하고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의 충격에 의하여 낙반이 이루어지기 쉽다.

만장굴에서는 3km가 더 이어져 있는데 박주, 진드기, 거머리등이 살고 있어서 보호 차원으로 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



← 만장굴 내부에서 찍은 사진

② 용천수를 찾아서
 용천수를 조사할때는 사진을 찍고
 적정 그 곳에 사는 할머니나 적정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1) 현재 용천수와 관련된 중앙도서관
 마을에 수도가 보급되면서 주민들이 구지
 용천수에 갈 필요가 없어져서 용천수는
 자연히 내버려졌고 아무런 쓰임새도 없다.

2) 현재 용천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예전에는 마을의 빨래터, 식수로
 이용되었던 곳이 점점 아무도 살피
 지 않음의 산더기가 쌓이고 물도 맑지
 못한 그런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용천수는 그 마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므로 굳이나
 그 마을에서 깨끗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nkle Thinkle Thinkle

용천수의 사진
디지털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



← 아마
얼기로
물이 들어오는
듯 싶다.



관
ARY

← 이리저리
쭉러기가
들어와 아저
씨 쓸모가
없게 되버린
용천수...

<< 용천수의 보호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진다. >>

Thinkle -10- Thinkle

<면담 내용>

우리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용천수에 대해서 여쭙어 보려고 하는데..
시간 있으신가요?

할머니: 그래, 허영 물어보라.

우리들: 할머니, 용천수는 옛날에 어떻게 쓰였나요?

할머니: 옛날에는 물놀이도 하고 식수로도 쓰고 할래도 했잖아.
저기 수감물은 식수로 쓰고, 물놀이 하고 영등물은 할래하면..

우리들: 아, 흐른물을 영등물이라고 부르시는군요?

할머니: 흐른물? 우리 흐른물이랑 안행마을 중앙도서관

우리들: 그럼, 영등물과 수감물은 언제부터 쓰여지지 않았죠?

할머니: 수도가 들어오면서 부터 안행. 요즘은 안간지 허영핀..

우리들: 그래서 고철동이 거기에 버려져 있었던 거군요..

할머니: 기? 나쁜 사람들이네이?

우리들: 지금은 관리하는 사람만 없나요?

할머니: 아무도 관리안해..

우리들: 할머니, 말씀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래, 잘 가라.. 그리고 또 오라이?

우리들: 네. 안녕히 계세요.. -11-

<답사를 다녀와서>

콰이흥: 수월 리얼 우주는 답사를 갔다.

그 날은 정말 피곤하로 지친 하루였다.

특히 거의 열시간 동안 걸어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힘들 것 같다.

처음으로 갔으면 편양 답사였기 때문에 더욱 더 피곤했고 그만큼 재미있었던 것

같다. 만양굴은 전에 갔었던 곳이였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았다. 그 안에는 천방에

서 물이 툭 툭 떨어지고 유익 습기가 많은 곳이라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너무나 시원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진으로 찍었다. 그런데 찍으니까 필름이

들어가는 것이다. 아발싸! 필름을 다 쓴 것이었다. 우와! 순간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사를 마치고 또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태우면서 정말 좋은 분에게

생각했다. 우리는 가야 동굴수를 찾았는데 굉장히 더럽게 변해있어서 허탈하였다.

옛날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동굴수가 더러워서 아쉽고 조금은 허탈했지만 그래도

즐거워 보이었던 것 같다. 모든 생체해보영 주인공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홍서경: 그 날 나의 기분은 변덕스러웠다.

처음에 갈 때에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지만 **홍동강 생태박물관** 이마미마한 거울

같이 전까지는 **알았다** 우리들이 **네스**에서 **세전** 후 **꽃이**라는 **저음**은 재미있었

으나 글 읽으니 또다른 보시를 읽을 수 없었다.

만양굴이 도착했을 때는 전부가 떠도 없었다. 정성을 간단히 해결한 뒤.

만양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물론 기대감이 차올랐고,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는 동굴수의 실재를 보았을 때부터다. 내가 본 동굴수는 옛날 목록과

달라졌다고 하면 알지 못한 정도다. 물론 보지 않고 쓰레기만 씹어왔고,

절박 동굴수는 조금. 나의 기대나 상상과 외장할 기적처럼 처음 본 동굴수는

실망과 허무의 극이다.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다. 모든 게 뒤섞인 아주 힘든 날이다.

임희진: 힘들지 않았다고 부장하는 가늠 힘들지만 내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 날 날씨가 매우 좋았는데 그것도 무척이나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만장군에게서 편지가 떨어져 날라다기도 했고 김병태수목장까지
 우리 이삿짐을 차로 데려다주실 고마움 아저씨도 만났고
 김병태수목장에서는 용희수를 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물가하면서 겨우겨우
 용희수 '흐름물'과 '수강물' 두 번 보고 지나 허탈할만 느끼고,
 아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게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같다.
 처음하는 현장답사였는데 힘들지만 우리 자연생태도 탐험하러 배가고 왔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용암들을 '안상굴', 용천수 '흐름물'과 '수강물' 모습
 보고 체험하고 알고보니 캄으로 신기하고 우리 제주의이런지점이 정말 멋지다.
 만이 용천수의 모습이 재밌게 되고 있지 않지만, 사회생활이 말대로 일면 시간
 해결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고이 추억으로 예쁘게 간략하게 수록한 우리
 '열정열정' 주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말 부끄럽고 좋은 땅이 가격이 크게 느껴지는
 날은 오랜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생물지를 반응에서
 조사하는 방법도 좋았을 거라는 추억이다. 후사회 아직도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최고이다. 만장군의 신비로움과 용천수의 아쉬움이 겸비한...♡

장나영: 그 답사를 갔던 날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내 기억속에 남는다.
 답사를 간다는 것은 내가 무척이나 대단한 추억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어서
 너무 설렘이었다. 그런데 4~5km는 더 길고 하루동안 20명만 우리 만나서
 길을 물어보게 될 줄이야... 내 생각에 비해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용천수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설악적이었다. 소리가 시원하고 물에서도
 약간 냄새가 나는 듯했다. 어떻게 찾아온 용천수인데... 너무 허탈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은 내연설에 있어서 들도 없을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내가 죽을때까지..

최다송: 만장굴까지 걸어가는 길은 와이시스 없는 사막리프 같았다.
 자그마치 2.6km나 되는 거리를 걸다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점심은 먹고 포만감이 배는 두드리며 만장굴 안으로 들어갔다.
 물이 뜻, 뜻 떨어지고 습기가 많아 귀찮음을 같았다. 의외로 신록부부가
 같았다. 2.6km를 걷고 1km를 더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와이시스
 많은 사막을 걸었다. 가면서 적어있는 것들을 모두 수첩에 적은 후, 우리는
 통영석주에 도착했다. 통영석주 뒤에는 3km가 넘는 등골이 더 있었는데
 거머바나, 질의 박취 때문에 등재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고 한다.
 만장굴 양사 후 김병으로 가야했는데 우리가 택시를 타려고 나서
 삼던 택시들이 다 없어졌다. 한쌍을 걸다가 마중이 좋은 아저씨가 우리를
 타게 해주었다. 인정이 예마르지 않은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김병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우리는 통천수를 찾아 헤메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통천수는 없었다. 할머니께 주민들에게 물로 물어서 간 통천수는
 환경오염이 심각했다. 물고기가 살기는 했지만 고갈들이 통천수가 나와서
 고인 물은 오염시키고 있었다. 할머니와 시 연말을 했는데 우다가 들어오면서부터
 통천수는 ~~바위~~ 존재가 되었다. ~~돈~~ 조사를 마치고 잠이 들어 있어서
 느린 것은 우리 고갈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 고갈은 소중하다. -

삼유리: 수월리일 날 9시에 학교에서 만취한 우리는 만나 최간이의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정비를 하고 목적지를 정했다. 터미널로 가 시외버스를 타고 만장굴하에
 내려는데 2.6km 썩이나 더 가야했다. 만장굴에 도착하니 내가 고맙다. 정비는
 먹고 바로 만장굴로 발을 옮겼다. 만장굴에서 사진을 찍은 딱딱 도중 서점의
 학장으로 오는 우리 소문장으로 필름이 떨어져 아저씨로부터 원하는 바깥에
 사진을 6장 정도 남게 되지 못했다. 하지만 리필이며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을 찍었다. 다 먹고 통천수를 찾아 직접 보니 너무 상황이 좋았고 리필했다.
 쓰레기도 있었고, ... 하지만 옛날이 이 통천수 '소문장'의 '수정물'의 쓰임새를
 생각하면 정말 신하고 매우 흥미였다.
 기적이 남을 만한 리유였다. 힘들었지만...

【부록】 1. 학생들이 구성한 모듈별 지역학습 보고서 2

바람..
대손안에 있소이다~!!!!



-1학년 12반 4+팀-

[이백하, 이선희, 이재희,
이재현, 이정면, 인희연]

바람, 내손안에 있소이다,



Are you ready???

(실내 조사)

실내 조사 계획	
주제명	바람, 내손안에 있소이다~!!!!
학습목표	바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소주제	가옥, 돌담, 나무 , 비사현상, 풍력발전
조사 담당	조사 내용
이선희	가옥
이정민	돌담
이재현, 임희연	나무
이재희	비사현상
이백화	풍력발전

문헌 조사 내용

1. 가옥 - 이선희



[제주도가옥]

제주도는 거센 바람과 눈, 비가 많다.

그 영향으로 집은 낮고, 가옥의 벽면을 돌벽으로 쌓고, 지붕은 띠로 덮은 후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동아줄로 촘촘히 엮어매는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한 곳이므로 온돌을 시설하지 않고 부뚜막 없이 술을 따로 내걸어 음식을 만든다.

*다른 제주 가옥의 특징

대문이 없는 본도의 민가에는 입구에 정주석을 세워 주인이 있고 없음을 알린다. 하나가 걸쳐 있을 때에는 가까운 곳에 있으며 두 개가 걸쳐 있으면 한참 있다가 돌아가며, 세 개가 걸쳐있으며 저녁무렵에야 주인이 돌아온다는 표시이다.



2. 돌담 - 이정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도처에 돌이 많기 때문에 밭, 집터, 등 모든 토지의 경계뿐만 아니라 묘지에도 돌로 담을 쌓는다.

(1) 돌담

제주도는 바람과 돌이 많은 화산섬이다. 제주사람들의 삶은 바람과 돌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제주의 바람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지독해서 '바람이 할퀴고 간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모질다.

게다가 제주의 토양은 화산회가 쌓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따라서 바람이 한바탕 불면 기름진 흙가루와 애써 뿌린 씨앗이 모두 날아가고 만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숙명으로 삭히면서 열악한 환경을 개척하고 땅을 다스리는 슬기를 돌과 바람에서 체득했다. 돌담은 제주인들이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생활문화의 유산인 것이다. 특히 여러개의 돌을 층층이 쌓은 것을 돌담이라고 하는데 돌담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밭담 : 밭과 밭의 경계를 짓는 돌담은 '밭담'이다.



② 잣백(담) : '잣백(담)'은 잔 돌맹이나 자갈로 성담처럼 넓고 기다랗게 마주 덧붙여 쌓아 올린 돌담을 말한다. 방풍을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밭에 돌출 되거나 흙 속에 감춰진 돌맹이를 수시로 캐내며 쌓는 동안에 이뤄진 돌담이다. 거친 땅이지만 밭의 자갈은 흙이 날라가는 것을 막고 태양열을 흡수하여 습기의 증발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돕는 거름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기름자갈'이라 한다.



- ③ 산담 : 방목지나 야산, 밭 등 돌로 담을 쌓아 묘지의 보호 및 경계와 표시로 담을 쌓았다.
- ④ 산간이나 들에 밭에 경계로 돌을 쌓아 표시한다.
- ⑤ 조상의 산소에 돌담을 둘러쌓아 말이나 소 등 가축과 산불의 침입을 막는다.
- ⑥ 마을 안길 전통초가의 울타리로 돌담을 쌓아 바람을 막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올레를 만든다.
- ⑦ 전통초가의 벽을 돌로 쌓아 만들어 흙을 받랐다.

3. 나무 - 이재현, 임희연

(1)편형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자라는 나무로 제주도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나무가 한쪽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방풍림 바람을 막기 위하여 가꾼 숲. 바람막이 숲.

[제주의 방풍림]



제주도 과수원의 방풍림으로 쓰이는 삼나무는 제주도의 경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렇지만 그 덕에 굴 과수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나친 방풍림은 냉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4. 비사현상 - 이재희

비사현상이란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현상을 사막의 사구를 말할 수 있는데 바람에 방향에 따라 사구의 모양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사구는 모래 언덕의 경사가 다



른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풍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건물이나 농가, 도로 등이 모래로 덮히기도 한다.

5. 풍력발전 - 이백화

풍력발전이란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 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이다. 풍력발전은 어느 곳이나 산재되어 있는 무공해, 무한정의 바람을 이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에는 중문단지에 250kW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제주지역을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600kW급 풍차 4기를 구좌읍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한편, 행원에도 15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풍력발전의 입지 조건]

- ① 설치 지역의 풍속, 풍향 조건
- ② 설치 지역의 돌풍 또는 난류의 생성 유발 요인 소지 여부
- ③ 설치 지역 주위의 장애물 또는 가로막이 산등의 존재 여부
- ④ 설치 지역 토양이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
- ⑤ 토양의 배수가 원활할 수 있는 성분인지의 여부
- ⑥ 시스템 운반 및 건설에 대한 여러 조건의 용이성
- ⑦ 경관 영향 및 발생 소음 영향



<김녕 해수욕장에서 관찰>



(모래가 날아가지 않게 덮어놓음)

돌담

① 집을 둘러싸는 돌담



제주의 전통 초가들은 바람받이 땅에 걸맞게 집체의 바깥벽을 자연석이나 징으로 쫓아 다듬은 돌로 쌓고, 지붕은 짐줄로 바둑판처럼 얹어댔다.

② 밭을 둘러싸는 돌담.



밭을 둘러싸는 돌담은 밭의 경계뿐만 아니라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좀
솜이 쌓이지 않고 듬성듬성 쌓아 언뜻 보기엔 매우 허술해 보이지만 제주에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듬성듬성 쌓아 돌틈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 어지간한 태풍에도 끄덕하지 않고 잘
견딘다. 밭을 둘러싸는 돌담은 방풍을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밭에 돌출되거나 흙속에
감춰진 돌맹이를 수시로 캐내며 쌓는 동안에 이뤄진 돌담이다. 거친 땅이지만 밭의 자갈은
흙이 날라가는 것을 막고 태양열을 흡수하여 습기의 증발을 막아 농장물의
성장을 돕는 거름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기름자갈이라 한다.

자~떠나자~ 바람 잡으리~~|||

(현지조사)

현장조사 기간	4월 26일 9시부터 5시까지.
현장조사 장소	행원리 풍력발전소, 김녕 해수욕장
왜 이 곳을 현장조사장소로 정하였는가?	제주도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 전기를 일으키는 풍력발전모습을 보고싶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비사현상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곳들을 장소로 선택했다.
현장조사 과정	
<p>★하루 일정★</p> <p>오전</p> <p>9:00 물허벅 공원에서 만남</p> <p>9:30 늦게오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다 모이자 출발!!</p> <p>9:40 터미널 도착(백화네 어머니가 데려다 주심.)</p> <p>10:00 행원행 버스를 탔. 버스에서 김녕에 사신다는 할머니를 만나서 바람에 관한 대화를 나눔</p> <p>10:50 행원리 도착.</p> <p>11:20 행원에서 풍력발전소까지 찾아감.</p> <p>11:25 일요일이라 사람이 없음.</p> <p>11:25 잠시 당황함.</p> <p>11:30~12:00 주위의 풍력발전기를 보고 관찰(필름이 없어 사진을 찍지 못함)</p> <p>12:10 비사현상 관찰을 위해 김녕해수욕장으로 걷기 시작.</p> <p>12:50 한40분을 걸다가, 아저씨를 만남.</p> <p>오후</p> <p>12:50~1:00 아저씨의 도움으로 10분만에 김녕해수욕장 도착</p> <p>1:00~1:30 필름을 사러 돌아다님</p> <p>1:30~2:30 해수욕장 여기 저기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함.</p> <p>2:30~3:00 조금 쉬</p> <p>3:00~3:40 관찰을 다 하고 다시 사진을 찍으러 행원리로 갔(또 어떤 아저씨의 도움을 받음)</p> <p>3:40~4:10 여러장의 사진을 찍음.</p> <p>4:10~5:00 집으로 돌아옴.</p> <p>★이용한 교통수단★버스</p> <p>★걸린 시간★</p> <p>오전9:00~오후5:00 8시간 걸림</p>	

현지조사 내용

1. 행원 풍력발전소(풍력발전)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풍력발전소라!!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가며 행원리를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저 멀리 돌아가는 작은 바람개비 날개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저기에서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풍력발전소는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잠시 실망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풍력 발전기는 정말 컸다. 올려다 보려면 고개가 아플 정도였다. 그리고 주위에서 있으면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조금 나기는 했지만, 그리 큰 소음은 아니었다.

풍력발전기 바로 옆에 가 보았지만 다른 곳의 흙, 돌멩이, 등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것 뿐이었다.

2. 김녕 해수욕장(비사현상)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현상을 '비사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바람이 많은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해수욕장의 모래가 날리는 것이 그런것인데,특 히 김녕 해수욕장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가 보게 되었다.

김녕 해수욕장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보이는건 바다와 모래 뿐이었다.

특히 모래는 길가에까지 날리고 있었다.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보니, 검은 천으로 모래사장이 덮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모래가 많이 쌓여있었다.

우리는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근처 횡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바쁘신 관계로 면담을 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관찰만 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시 면담을 하기 위해서 김녕리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았다.

우리들: 안녕하세요.김녕리사무소죠?

사무소: 네.

우리들: 저희가 조사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보면 검은 천으로 덮여있던게 뭐가요?
사무소:그것은 바람에 모래가 날리지 않게 덮어 놓은 것입니다. 자꾸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
는 바람에 그런 장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 아하~~~
그래서 우리는 김녕에서 비사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방지하
려고 천으로 덮어 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현지조사 내용(면담내용)

행원리를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녕에 사신다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들: 할머니 김녕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나요?
할머니: 그럼...하영 날리쥬
우리들: 그럼 그에따른 피해에는 무엇이 있나요?
할머니: 별다른 피해는 어서, 방안에 모래가 들어와 방바닥 쓸젠허난 힘들고 밭에
도 모래가 들어와 이실때도 있고, 금방 현 빨래에도 모래가 붙어 이실때오 이쥬.
우리들: 그렇다면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요?
할머니: 아직은 별다른 피해가 어시난 필요없다.
우리들: 네~감사합니다.

우리지방은 바람이 비교적 많이 부는 섬지역이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장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매우 세게 부는
날을 선택해야 되겠다.

다녀와서,,,

이재현 : 향토답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버스를 타고 견고,,,정말 큰 대담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 점에서 행복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점에서도 좋았다. 답사를 할 때에 좋은 아저씨들을 만나서 우린 편하게 갈 수 있던 것 같다. 또한 사진에서나 먹어서 볼 수 있었던 풍력발전기를 가까이서 보게 되어서 기분이 좋기도 하였다. 난 친구들과 이천데를 처음으로 타봤기 때문에 더욱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하여 괜히 좋았다..

김녕 해수목장에서 비사현상에 대한 면담을 하러 어느 헛집에 들어가서 여쭙어 보니 반응이 참 차가웠다. 그 때 기분이 매우 나빴다. 혹시라도 제주도에 관광온 관광객들에게 그러지는 않는지...정말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걱정되기도 하였다. 너무 많이 걸어서인지 얼굴도 타고 힌도 들었지만 우리 제주도를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선희 : 가기전,, 많이 설레었다. 우리 끼리 가서 무엇을 조사한다는것,, 재미 있을것만 같았다.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득 안고 약속장소에 나갔다. 백화 언마계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대려다 주셔서 참 고맙웠다.

이번 조사 하면 생각나는게 차태위 주셨던 분들, 공사장 아저씨, 대구 아저씨,,,

공사장 아저씨는 우리를 김녕해수목장까지 대려다 주셨다. 또 대구에서 와서 2달동안 사셨다는 아저씨 우리를 김녕 해수목장에서 풍력발전소까지, 또 거기에서 우리의 집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다. 그에 비해 힌드일도 있었다. 풍력발전소까지 힌겁게 걸어갔건만 관계자가 없는 관계로 사진만 찍었던.. 이장님 집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일 등등,,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답사가 끝나고 나니 참 뿌듯했다.

임희연 : 향토 답사.....처음엔 친구들과 놀러간다는 생각에 가볍게만 느껴졌던 숙제였다. 하지만 하나 하나 해 나가다 보니 정말 어렵고 숙제였던 것 같다. 이번 답사를 하며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른다는 점이 제일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답사를 하다가 대구에서 오신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는 대구가 그리워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다. 고향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제주도는 섬이어서 시러'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고, 모두 육지로 나가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 답사를 하며 제주도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던 점이였다.

하지만 이번 향토답사를 통해 적어도 제주도에 바램이 끼치는 영향만큼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또 친구들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향토당사라는 것.

제주도를 안다는 것.

제주도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이 된다는 것....

하나 하나 겪어가며, 알아가며 내고향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이재희 : 처음엔 너무나 어려운 것도 같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것에.. 늘 생각했
다.. 처음 갔을 때에는..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놀기 만했다.. 하지만.. 두번째 갔을 때에는.. 계획
도 안 세우고 목적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 모뎀장으로써..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아이들에
게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풍력발전소에 사람이 없었다. 에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지.. 그래서.. 한참동안.. 앉아서 생각해보았다. 결국은 어떤 아저씨의 차를
타고 김녕 해수욕장 갔다가 모래가 안 날려서 우리가 손으로 날려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
에 사진 나온 것을 보니까 사진에 손이 사진에 나뉘 버렸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쩔든 찍었다
고 너무 좋았다. 비록 먼달 같은건 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하고 왔다는 생각에 너무나 좋았다.
제발 선생님께 퇴짜 받지않았으면..

이백화 : 향토당사를 갔다니깐 너무 신났다. 친구들라 놀러간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도착하고 나서 걸어다니다 보니 굼벵 짜증이 났고, 하기 싫은 마음도 점점 생겨났
다. 특히 발전소 앞에 아무도 없자 정말 짜증났다. 하지만 김녕해수욕장으로 가면서 다시 즐거
운 마음이 생겨났고 재미있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향토 당사를 하고 나서 보람도 있었고, 친구들라의 우정도 더욱 좋아진 것 같다.

이정민 : 향토당사를 갔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되었다.

고생하는 점도 엄청 많았다. 사람이 없었고, 많이 걸어 다니고 점심도 못 먹은 것,,,

하지만 친구들라 걸어다니면서 즐거웠다.

너무 이뻐웠던 향토 조사였다.

【부록】 2. 지역학습 활동 교사 평가지 1

교사 평가지																			
교사가 설정한 교수목표																			
평가내용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평점 (50)
	우수	보통	미흡																
1. 주제망 구성하기 ①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 주제망 구성인가? ② 주제망에서 조사내용과 범위,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가?																			10
2. 현지조사 ① 주제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는가? ② 현지조사 활동은 조사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였는가?																			10
3.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성실하게 기록되었는가? ② 보고서 제출 기한을 잘 지켰는가?																			10
4. 모듈원들의 역할분담과 협동학습은 잘 이루어졌는가?																			10
5. 조사내용 발표는 조사한 내용을 잘 이해하여 발표하는가?																			10
합계																			50
평점 기준 • 우수 10점 • 보통 8점 • 미흡 5점																			

【부록】 2. 지역학습 활동 동료 평가지 2

동료 평가지									
모둠 이름 :									
모둠에서 설정한 학습목표									
모둠원 이름									평점
평가내용									(20)
1. 주제망 구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5
2. 자기가 맡은 실내조사를 성실하게 하였는가?									5
3.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5
4. 보고서 작성에 성실히 참여하였는가?									5
합계									20
평점 기준 • 잘했음 ○ : 5점 • 보통임 △ : 4점 • 못했음 × : 2점									

【부록】 2. 지역학습 활동 자기 평가지 3

자기 평가지						
()반 ()번 이름()						
모둠 이름()						
평가내용		평 점	잘했음	보통임	못했음	평점 (20점)
1. 주제망 구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4
2. 자기가 맡은 실내조사를 성실하게 하였는가?						4
3.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4
4. 보고서 작성에 성실히 참여하였는가?						4
5. 지역조사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잘 하였는가?						4
합계						20점
평점 기준 • 잘했음 ○ : 4점 • 보통임 △ : 3점 • 못했음× : 1점						

【부록】 2. 지역학습 활동 다른 모둠 평가지 4

다른 모둠 평가지							
()반 ()번 이름()							
질문내용	다른 모둠 이름						평점 (10)
1. 우리 반의 다른 모둠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내용이 충실한가?							5
2. 우리 반의 다른 모둠은 조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발표했는가?							5
합 계							
평점 기준 • 잘했음 ○ : 5점 • 보통임 △ : 4점 • 못했음 × : 2점							

【부록】 3. 실험수업 전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도와 수업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보다 나은 지역 학습방법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세요. 1학년 ()반

I. 사회 교과에의 흥미도 및 수업 방법에 대한 질문

1. 초등학교 때 사회과 탐구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우고 난 뒤 제주도 지역 사회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초등학교 때 배운 「아름다운 제주도」 내용은 현재 중학교에서 사회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초등학교 때 사회과목 시간에 제주 지역조사 학습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4. 초등학교 때 실시한 제주 지역조사 학습은 재미 있었나요?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만)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초등학교 때 제주 지역조사 학습을 했다면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했나요?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만)
도서관 문헌자료 활용 컴퓨터 인터넷 자료 활용 신문 자료 활용
야외 현지조사 활동 실내조사와 야외현지 조사 모두 활용 기타:
6. 초등학교 때 제주 지역조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을 조사했었나요? (가장 흥미로웠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만 적어 주세요)
1)
2)
3)
7. 현재 다른 과목에 비해 사회 과목은 재미있나요?

【부록】 4. 실험수업에 대한 학생 반응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다음 질문들은 4월에 시행했던 지역조사 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보다 나은 지역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만 활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세요. 1학년 ()반

I. 지역조사 학습에 대한 설문

1. 제주도 지역을 사례로 하는 지역조사 학습은 재미있었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지역조사 학습으로 인하여 전에 비해 사회과목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지역조사 학습으로 인하여 사회과목에서 지리수업 내용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지역조사 학습으로 인하여 제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지역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야외 현지조사 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지역학습을 위한 실내 조사는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 했나요?
도서관 문헌 자료 활용 컴퓨터 인터넷에 있는 자료 활용 교과서 자료 활용
신문 자료 활용 교사가 준 참고 자료 활용 기타:
7. 지역조사 학습에서 가장 좋았던 수업과정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주제망 구성하기 실내조사 하기 친구들과 친해지기
야외 현지조사 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기타:
8. 지역조사 학습에서 가장 힘들었던 수업과정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주제망 구성하기 실내조사 하기 야외 현지조사 일정 짜기
야외 현지조사 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기타:

9. 제주도 지역학습을 다시 한다면 꼭 해 보고 싶은 과정은?

- 주제망 구성하기 실내조사 하기 야외 현지조사 학습
보고서 작성하기 기타:

10. 지역조사 학습을 통하여 제주도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1)
2)
3)

II. 주제망 구성에 대한 설문

1. 주제망 구성하기 과정은 지역조사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나요?

-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주제망 구성하기는 지역조사 학습의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학습목표 정하기 지역조사 내용 알기 지역조사 범위 정하기
모둠원들의 역할 정하기 야외 현지조사 일정 정하기 기타:

III.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에 대한 설문

1. 제주도 지역조사 학습 활동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소집단을 구성해서 한 것이 더 좋았나요?

-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으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되었나요?

-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지역조사 학습을 할 때 친구들과 협동학습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쉬웠나요?

-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 주제 정하기 주제망 구성하기 야외 현지조사 일정 정하기
야외 현지조사 하기 모둠원의 협동심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지리교육 대학원에서의 3년은 내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얻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리적 안목으로 국토와 그 안의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중한 분들께 부족하나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끊임없는 격려와 세심함으로 논문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신 손명철 교수님, 논문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각주하나부터 마침표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다듬어 주신 손길 없이는 논문이 완성될 수 없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학원 생활 내내 항상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주셨고 논문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신 송성대 교수님, 자연지리의 기초 지식을 넓혀주시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즐거움과 의미를 부여해주신 김태호 교수님, 멀리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면서도 영문초록을 단숨에 완성해서 마무리 해주신 권상철 교수님, 부족한 논문심사를 기꺼이 맡아서 이론과 실제의 적용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어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대구교육대학교 송언근 교수님, 바쁜 중에도 논문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페이지마다 빨간색 펜으로 도움말을 주신 강만익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남다른 애정과 격려로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잡아준 대학원 동기생들인 손병숙, 김미령, 오영매, 이혜숙, 오영선, 고은경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은 내 인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동학년 선생님들의 배려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나날임에도 흔쾌히 영문초록 기초를 만들어준 문미향 선생님, 논문 작성에 관한 잡다한 질문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조경원 선생님,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사진을 스캔해주며 논문 작성을 도와준 노금주 선생님, 수업 시간표를 조절해주어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주었던 조춘미 선생님, 지역학습 논문의 선배로서 논문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었던 김희선 선생님, 지역학습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준 한라중학교 1학년 제자들의 정성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자주 짜증을 냈음에도 따뜻함으로 투정을 받아주며 논문 편집을 마무리해준 사랑하는 나의 남편, 피곤해하는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지역학습 설문지 통계를 도와주었던 의젓한 아들 동현, 건강이 좋지 않아 수시로 병원을 오가는 중에도 며느리가 하는 공부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시어머니,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동생과 자식의 건강을 걱정해주었던 언니와 친정 부모님께는 한없는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2003년 7월